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179-01

# 행복지수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인권 현주소



국가인권위원회



EM027054

일시 | 2009. 9. 17 (목) 14:00 - 17: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10층)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행복지수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인권 현주소

- 일시 : 2009. 9. 17.(목) 14:00 - 17: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10층)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시간	내용	발표자
14:05-14:10	개회	김형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14:10-14:20	참석자 소개	최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4:20-15:30 (각 20분)	<b>제1발표</b>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박종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b>제2발표</b>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과 사회적 권리의 불균등 분포: 사회적 관계망의 관점에서	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제3발표</b> 행복의 조건: 청소년의 생활시간 패턴 분석을 통한 시사점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30-15:40	휴식	
15:40-16:20 (각 10분)	토론1	백혜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형욱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토론2	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교)
	토론3	이경림 (부스리기사랑나눔회)
16:20-17:00	종합토론	참석자 전체

# 목 차

## ▣ 발표문

### <제1발표>

-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 1  
박 종 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제2발표>

-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과 사회적 권리의 불균등 분포: 사회적 관계망의 관점에서** ..... 27  
염 유 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 <제3발표>

- 행복의 조건: 청소년의 생활시간 패턴 분석을 통한 시사점** ..... 51  
김 기 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토론문

### ■ 제1발표 토론

- 백 혜 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73  
김 형 욱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 79

### ■ 제2발표 토론

- 김 신 영 (한양사이버대학교) / 83

### ■ 제3발표 토론

- 이 경 림 (부스리기사랑나눔회) / 87



##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박 종 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 찬 응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서 효 정 (연세대 사회학과 대학원)

염 유 식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1

## 발 표

#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박종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찬웅 (연세대 사회학과)

서효정 (연세대 사회학과), 염유식 (연세대 사회학과)

## 서론

한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높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심은 그들의 학업성취에 맞춰져 있어서 종종 지나친 관심과 통제에서 비롯되는 현상들이 사회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편향된 관심과 통제로 인해 어린이-청소년들이 불행한 삶을 보내고 있다는 주장도 종종 제기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학문적인 검토는 미흡한 실정이다. 어린이-청소년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객관적 조건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주관적 행복감을 연구하는 것이 사회적 관심에 대한 학문적 대응으로 요구되고 있다.

한편, 최근 ‘행복지수(indices of well-being)’ 일반에 대한 연구가 사회과학계에서 활발히 진행되었고 특히 어린이-청소년 이 연구에서 어린이-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포함한다. 초등학교 저학년도 어린이-청소년에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설문조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의 행복지수 연구는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면서 촉발된 아동행복연구는 1989년UN의 아동권리협약이 체결되면서 더욱 가속화 되었다. 정책목표를 확인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가 기초작업으로 중요성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많은 연구자와 단체가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Ben-Arieh 2006).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어린이 행복지수연구는 삶의 질에 대한 사회 전반적 관심이 고조되었다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기의 경험이 전체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한 학문적 관심의 표출이라고 평가된다. 특히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행복감이 성인이 된 후 개개인의 전체적인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Yang 2008). 따라서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이들이 성인이 되는 시기 전체 사회구성원의 행복감을 예측하는 것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론 어린이의 행복은 성인으로 커가는 과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점점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정책수립에 대한 제안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해 발간되는 [아동-청소년 백서] [한국의 주요 아동지표] (2006) 그리고 [아동-청소년 백서] (2008)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어린이-청소년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백서의 성격상 정책현황과 성과를 다루고 있는 각종 자료를 수록하고 있어서 삶의 행복감을 체계적으로 측정한다는 지표의 목표에 부응하지 않는다. 더불어 어린이-청소년의 현황에 대한 자료는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한국 어린이-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특히 직접적으로 견줄 수 있는 경제개발기구(OECD)회원 국가들과의 비교연구는 한국 어린이-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행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 연구가 보다 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상대적 비교대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신영 백혜정, 2008). 지수개발의 특성상 일회성 연구 그리고 한 사회에 대한 연구는 행복측정의 의미를 확인하는데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축적된 측정과 다른 사회와의 비교를 통해서 한 지표의 의미와 그 해석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행복감이 각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검토할 수 있다면 측정의 신뢰성(measurement reliability)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타당성(content validity)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어린이-청소년의 행복(well-being)을 다차원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여 국제 비교를 시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행복측정은 몇 차례 시도되었지만 체계적인 지수개발에 대한 논의는 최근어야 시작되었다. 우선 우리는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으면서 국제비교가 가능한 행복지수를 다각도로 검토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개념화하고 지표를 설정하여 한

국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개별 국가차원에서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지조사와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구축된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 어린이-청소년이 과연 상대적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분석했다. 특히 OECD) 국가들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 어린이-청소년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행복한지 알아보았다.

## I. 이론적 배경

### 1.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정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의 사회적 지표 운동(Social Indicators Movement)으로 거슬러 올라간다(Aborn, 1985). 사회적 지표에 대한 각종 학회의 연구들이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쏟아져 나왔으며, 이 시점을 계기로 현재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발전에 있어 다양한 개념적 접근들이(Lippman, 2007) 나오게 되었다. 더불어 국제아동기금 (UNICEF)에 의해 1979년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는 ‘세계아동실태 보고서(State of the World’s Children)’와 1989년 유엔에 의해 채택된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해서 국제적인 관심과 연구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행복지수(indices of well-being)’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불규칙한 수많은 정의들과 개념들이 어린이 발달(the study of child development)의 영역(Pollard & Lee, 2003) 에서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의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를 위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행복’은 일반적으로 ‘삶에 만족하여 기분이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Layard 2003). 유사하게 사전적으로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호뭇한 상태”로 정의된다. 해당 용어에 대한 대체가능 단어는 ‘행복(감)(well-being)’, ‘삶의 질(quality of life)’,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들 수 있다. 행복(감)은 삶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감정상태를 의미한다. 삶의 질은 삶에 대한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객관적

삶의 질(경제적, 사회제도적 조건)과 주관적 삶의 질(심리적 안녕감 등)로 나눌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은 사회속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의 총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감)과 주관적 안녕감을 동일한 개념(김신영 & 백혜정, 2008)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따르며, ‘행복지표’를 Columbo(1986)에 따라 “정신적/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영역을 융합하는 다면적 구조”에서의 개인의 주관적인 삶에 대한 평가로 정의 내리고자 한다.

## 2.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영역과 측정

정의의 다양함과 마찬가지로, 행복지수의 영역과 그에 대한 측정방법에 대한 합의 또한 아직은 부재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해당 지수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크게 결과에 따른 특정한 정책을 구성하는 것과 단순한 상황을 파악하는 이해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UNICEF, 2006). 이를 반영하듯 연령을 불문하고 행복지수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연구결과에서 정책적인 합의 또는 실태 파악의 수준에서 분석되어 왔다. 비록 행복지수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에 있어서 영역구성이나 측정방법이 일치는 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들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해당 지수가 어린이-청소년의 삶과 관계의 복잡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면적(multi-dimensional)’인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UNICEF, 2006).

지표에 대한 초기연구 가운데 코간과 젠킨스는 지역적 인구센서스에 기반하여 육체적 건강, 어린이-청소년의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 기능으로 어린이 행복지수를 구성하였다(Kogan & Jenkins, 1974). DIPOV(Disorganized Poverty)라고 일컫는 연구의 지표는 건강과 복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깝고 먼 환경의 영향을 통해 시사하였다. Zill & Brim(1975)은 ‘Childhood Social Indicators’라는 행복지수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미국 어린이들의 삶의 조건(conditions)에 있어 "건강, 행동, 그리고 안녕감(well-being)의 변화를 측정하는 통계적 시계열 자료"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은 어린이들의 기대치(expectations), 두려움(fear), 그리고 만족(satisfaction)을 포괄하는 사회적, 정서적 안녕감의 영역에서의 자료의 필요성을 제기하



였다. 1970년대부터는 이와 같은 연구에 힘입어 많은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의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에 대한 영역의 구성과 측정 방법을 제시하였다(Lippman, 2005).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미국에서 *Profiles of Children*(1970), *The Status of Children* (1975,1977), *The Status of Children, Youth, and Families*(1979)와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Lippman, 2005),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UNICEF의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1979), World Bank의 *World Atlas on the Child*(1979), Population Reference Bureau의 *The Children in the World chart book*과 *The World's Children Data Sheet*(1979) 등 활발하게 발간하기 시작했다(Zill et al., 1983). 더 나아가, 시민사회 영역에서 행복지수를 연구하는 움직임 또한 일어났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기관은 미국의 KIDS COUNT 1948년에 창단된 The Annie E. Casey Foundation의 산하 연구기관으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매년 미국 전 50개의 주를 상대로 10가지의 행복지수로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표 1]은 현재까지 잘 알려져 있는 몇몇의 행복지표와 그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행복지수 및 구성

지표	영역구성
The US Child Well-Being Index (CWI)	물질적행복 건강 안전/행동 교육성취 커뮤니티참여 사회적 관계 감정/정신적 행복
The UK Public Service Agreement Targets (PSA)	건강 안전 즐거기와 성취하기 긍정적인 공헌 경제적 행복의 달성
The State of London's Children (SOLC) 2001	아동 빈곤 건강과 행복 교육 놀이, 여가, 문화, 학교 밖 생활

지표	영역구성
The State of London's Children (SOLC) 2001	교통 가족, 사회적 관심, 보호 주택, 이웃, 환경 범죄와 정의
KIDS COUNT	저출산아, 유아사망, 아동사망, 폭행, 청소년 출산, 퇴학, 부모의 안정적 고용, 아동빈곤, 홀부모가족, 그 밖에 인구학적 경제학적 배경 데이터
Ben-Arieh et al. 2001	안전과 육체 개인생활 공공생활 아동의 경제적 자원과 공헌 아동의 활동
Bradshaw (2001, 2002)	육체적 행복 인지적 행복 행위의 행복 주관적/정신적 행복
Aber, Gershoff and Brooks-Gunn (2002)	기본적 생활 가족의 경제활동참여 주택 건강 교육 공공의 공간 사회참여 배제의 주관적 경험
The Well-being of Children in the UK (Bradshaw and Mayhew 2005),	아동인구학변인 아동빈곤과 결핍 아동건강 아동라이프스타일 정신건강과 행복 아동의 시간과 공간 아동학대, 방임 아동관리 아동보호 범죄와 불법약물사용 교육 주택과 이웃

거의 3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으며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와 같이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합의된 어떠한 행복지표를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기본 인권을 선언하는 유엔아동인권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규범적인 열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요소들을 지수라는 것에 포함할지에 대한 수년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총 49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인권협약의 중 다수의 요소들이 행복지수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기제를 던져주고 있지만 특히 반차별(non-discrimination; 제2공범), 어린이를 위한 최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제3공범), 생존과 발전(survival and development; 제6 공범), 그리고 어린이들의 시각 존중(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제12 공범)과 같은 이 특정 네 가지 요소들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지수를 정의하고 개념화하여 측정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Bradshaw et al, 2007). 이들은 곧 어린이들의 권리가 어떠한 차별에도 기반해서는 안되며 어린이들의 최대의 이익에 의해 모든 행동과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하고 어린이들의 참여는 언제나 그들의 생존과 발전을 촉진하는 목표에 근거하여 실천되어야 함과 동시에 어린이들의 권리가 경청되고 이는 그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Santos Pais, 1999). 따라서 인권협약은 어떠한 형태의 국가이든 간에 ‘어린이’라는 공통적인 주체와 그들의 ‘인권’에 기반하였기에 보편적으로 행복지수라는 것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용이점이 있는 것이다.

행복감 혹은 안녕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신체적 및 육체적 건강의 발발과 통제에 대한 논의에서도 우리는 행복지수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개념을 찾아 볼 수 있다. 병인학적인 논의보다 예방학적으로 질병을 접근하는 “Salutogenesis”라는 Antonovsky(1979)의 주장은 개인의 건강과 안녕감이 실질적인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겪어온 삶의 배경을 비롯하여 내외부적 상황적 요인들 그리고 개인 각각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Antonovsky(1987)는 “Sense of coherence”라는 이론적 표현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개인이 영향을 받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그 개인의 응집능력을 파괴할 수 있는지 그러지 못한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능력이 스트레스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Antonovsky의 위와 같은 논의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개인의 내외부적 상황을 비롯하여 이에 대한 대처능력과 행복지수와의 관계

를 건강이라는 개체를 통하여 연관 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행복지수에 대한 논의에 근거하여 우리 연구의 기반이 되는 UNICEF의 연구(2006)는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행복지수를 18(?)개의 구성요소와 40(?)개의 지수로 구성되어 있는 여섯 가지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그 가운데 17개 구성요소와 35개의 지수를 기대로 받았다. 누락된 구성요소는 ‘폭력의 경험’이다. 그리고 누락된 지수는 (모두 ‘폭력의 경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싸움을 경험한 비율, 강압을 받은 비율 등이다. 싸움과 강압은 본 연구의 설문지에서 왕따를 포함하는 다양한 다른 질문으로 시도하여 pretest를 하였지만 물었지만 그 결과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어 의문으로 본 연구에서는 배제되었다. 그밖에 한 구성요소 내 복수의 지수 가운데 비교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지수 세 개는 배제되었다. 해당 영역들은 포괄적으로 어린이들의 관점을 비롯하여 아이들의 행복감 및 안녕감에 책임이 있는 어른들의 시각을 포함하며 어린이들의 개인적 경험들을 보여줄 수 있다(UNICEF, 2006)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표 2]는 여섯 가지 영역과 각 영역의 구성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UNICEF 연구(2006)는 다차원적인 행복지수로서 최근 행복지수 연구의 성과를 잘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타당성과 신뢰성이 이미 검증된 지수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수를 구축하고자 하는 본 연구목적에 가장 충실한 지수로 볼 수 있다. 특히 OECD 국가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와 유의미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UNICEF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는 2006년에 처음 시도되었고 2009년 현재 후속연구가 진행중이지만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다. 2006년과 2009년 연구에서 한국자료는 누락되어 있다.

[표 2] UNICEF 산하기관 INNOCENTI의 행복지수 영역 및 구성요소(2006)

영역	구성요소
물질적 행복 Material Well-Being	상대적 빈곤 미취업 가정 결핍
보건과 안전 Health and Safety	영아건강 예방접종 사고사
교육 Education	학업성취 교육참여 학업열망
가족과 친구관계 Peer and Family Relationship	가족구조 부모관계 친구관계
주관적 안녕감 Subjective Well-Being	건강 학교생활 개인행복
건강관련행동 Behaviour and Risk	건강행동 위험행동 폭력경험

‘물질적 행복’은 어린이들이 가정과 이웃에게로부터 그들의 안녕감과 발전에 있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조건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상황이 많은 영역에서 어린이들의 안녕감과 성인기 행복감에 영향을 주기에 용이한 요소이다. ‘보건과 안전’과 ‘주관적 안녕감’은 어린이들의 개인 자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들이 직접 자신의 행복감 및 안녕감을 구성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영역들이다. 어린이들에게 있어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학교를 포함하는 ‘교육’은 현재의 행복감 및 안녕감을 비롯하여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어린이들이 직면하는 교육 체계의 장단점을 알 수 있는 요소이다. ‘가족과 친구관계’는 사람 대 사람의 상호작용의 측면에 근거한 것으로 가족은 행복감 그 자체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친구는 개인이 성장과 더불어 가족과의 별개의 방향에서 행복감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을 설명해준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련행동’은 주변 상황과의 상호관계성을 나타내줌과 동시에 개인의 자원(resource)과 취약성(vulnerability)

을 보여 줄 수 있다(UNICEF, 2006).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영역들이 어린이-청소년에게 있어 미시적 그리고 거시적으로 직면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포괄하여 그들의 전체적인 안녕감을 관찰 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행복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비록 개발과 측정이 가지는 의미는 다면적이거나, 지수 연구의 필요성을 간단히 말하자면 단편적인 관찰을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대책의 수립에 복합적인 지수의 개발이 매우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지속된 지수연구의 논쟁을 통해서 볼 때, 일관성과 측정 타당성을 확보하기만 한다면 행복지수에 대한 연구는 1) 상황을 간략하게 묘사할 수 있고, 2) 변화를 관찰하는데 도움이 되며, 3) 정책목표를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널리 인정된다(Land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UNICEF(2006)가 제시한 지표에 근거하여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간구하는 것에 의의를 가지고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본 연구자료는 한국방정환재단의 주관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진행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연구를 통해서 수집되었다. 현대리서치연구소가 조사설문 조사를 담당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자료 (Korean Child Well-Being Index 이후로는 KCWI) 연구는 2009년 2월부터 시작하여 2009년 5월에 완성되었다. 설문조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이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은 총 6개의 집단(주거환경을 기준으로 크게 중상층과 중하층으로 구분하였고, 중학교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을 나누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두 학부모 집단을 구성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해 완성된 설문지는 초등학교 5학년생 32명과 고등학교 1학년 및 2학년 학생 74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된 설문지는 전국의 5대 권역(제주도 제외) 단위로 2008년도

교육통계 자료를 근거로 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권역별 학생수 비례 및 성비례로 5,000명을 대상으로 단순무작위로 학교를 추출하여 샘플링을 한 집단에게 배부되었다. 하지만 권역 내에서 단순무작위로 추출된 학교들의 지역규모가 편중되어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동 및 도서벽지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서울과 경기인천 및 서울내에서 강남 강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 선정시 도시규모 비율에 따른 학생 분포를 일부 고려하였다.

이와 같이 비례할당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은 초등학교(27개 학교), 중학교(21개교), 일반고등학교(17개교), 실업고등학교 (14개교)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남학생 2704명과 여학생 2821명, 총 5525명이 표집되었다.

한편 행복지수의 각 영역을 구성하는 지표 가운데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여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는 지표들이 있다. 영아사망율, 예방접종률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부득이 이러한 국가별 지표의 완성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통계청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작성한 통계를 활용하였다

[표3]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 연구(KCWI)의 영역 및 구성내용과 자료출처  
(UNICEF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됨)

차원	구성부문	지표	측정	외국 자료	한국 자료
물질적 행복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의 50% 이하	개발국가에서 중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한 아동의 비율	OECD 2000 (1999, 2001 부분적 사용)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08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매일 일을 나가는 성인이 없는 가정의 아동 비율	OECD 2005	본 연구 설문지 (KCWI)
	결핍	교육여건	교육자재 (책상, 조용한 곳, 컴퓨터, 교육소프트웨어, 인터넷, 계산기, 사전, 학교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책)가 있는가? (6개 이하 소유비율)	HBSC 2001 PISA 2003	
		문화적 결핍	집에 책이 10권이상 있는 아동의 비율	PISA 2003	
보건과 안전	영아건강	영아사망율 저체중아 비율	사망한 0-1세의 비율 (출산 1,000명 당)	OECD Health data 2002, 2003	사망원인통계 2007
			2.5kg 이하 저체중아의 비율		OECD Health data 2002, 2003
	예방접종	질병 예방접종 여부	홍역예방접종 (12-23개월)	WDI 2003	WDI 2003
			소아마비 예방접종 (12-23개월) DPT3 (Diphtheria, Pertussis and Tetanus) 예방접종 (12-23 개월)	HNP 2002	HNP 2002

차원	구성부문	지표	측정	외국 자료	한국 자료
	사고사	아동 사고사	최근 3년 평균 자살과 사고사를 당한 아동 (19세 이하)의 십만명당 비율	WHO mortality database 2005	사망원인통계 2007
교육	학업성취	15세 학업성취	읽기시험점수 수학시험점수 과학시험점수	PISA 2003	PISA 2003
	교육참여	15~19세 아동의 학업유지	학교를 다니는 15-19세 아동의 비율	OECD 2003 (Education at a glance 2005)	국제통계연감 2007 (교육정도별 취학률)
	고용으로의 전환학업열망	미숙련 일자리	기대하는 일자리가 미숙련 일자리인가?	PISA 2000 (Education at a glance 2004)	본 연구 설문지 (KCWI)
가족과 친구관계	가족구조	홀부모가정 의붓가정	홀부모와 같이 사는 아동의 비율 의붓 아버지 의붓 어머니와 같이 사는 아동의 비율	HBSC 2001	본 연구 설문지 (KCWI)
	부모관계	함께 식사하기 함께 대화하기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아동의 비율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부모님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아동의 비율	PISA 2000	
	친구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급우가 친절하며 도움을 주는가?	HBSC 2001	
건강관련 행동	건강행동	아침식사 과일섭취 과체중 운동	학교 가기 전에 아침식사를 하는 어린이 비율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 체질량지수 (BMI ) 25이상 비율 일주일에 한시간 이상 운동한 날의 수	HBSC 2001	본 연구 설문지 (KCWI)
	위험행동	흡연 음주 마약 섹스 임신과 출산	흡연비율음주비율 마약사용 비율 섹스 경험 비율 십대출산율	HBSC 2001 WDI 2003	
	인구통태조사보고서 2007 (통계청)				
주관적 행복	건강	주관적 건강	스스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동의 비율	HBSC 2001	본 연구 설문지 (KCWI)
	학교생활	학교생활만족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		
	개인 행복	삶의만족척도 부정적 생각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자신을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 주변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 외롭다고 느끼는 학생의 비율	PISA 2003	

HBSC: 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Survey (WHO): \* 한국은 현재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PISA: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OECD)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행 보고서 참조

WDI: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HNP: Health, Nutrition, and Population Data (World Bank)



## 2. 주요 변수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여섯 가지 차원은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각각 두개 혹은 세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구성요소는 하나 혹은 복수의 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측정되었다 .

첫째, ‘물질적 행복’은 상대적 빈곤, 미취업가정, 그리고 절대적 빈곤의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상대적 빈곤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각 해당 국가 중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의 아동이 전체 아동수에 차지하는 비율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미취업 가정은 부모의 취업여부를 응답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절대적 빈곤은 교육여건과 문화적 결핍의 두 가지 지표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교육여건은 책상과 공부방을 포함하는 몇가지 교육자재를 보유하고 있는지 응답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문화적 결핍은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책의 숫자를 통해서 측정되었다.

둘째, ‘보건과 안전’ 영역은 영아건강, 예방접종, 그리고 사고사의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수집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구성된 이 영역의 자료는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을 구성하는 기초적이고 수동적인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영아건강은 영아사망률과 저체중아의 비율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홍역, 소아마비, DTP3의 세 가지 질병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진 아동의 비율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사고사는 최근 3년 평균 자살과 사고사를 당한 아동의 비율(10만명당)로 측정되었다.

셋째, ‘교육’ 영역은 학업성취, 교육참여, 학업열망의 세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학업성취는 국제학업평가자료인 PISA를 바탕으로 하여 15세 아동의 읽기, 수학, 과학 시험의 점수로 차악되었다. 교육참여는 학교를 다니는 15-19세 청소년의 비율로 측정되었다. ‘학업열망’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 자신이 미숙련 일자리를 자지게 되리라 예상하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넷째, ‘가족과 친구관계’는 가족구조, 부모관계, 친구관계의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구조는 홀부모가정과 의붓가정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부모관계는 응답자와 부모의 친밀함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데 얼마나

자주 함께 식사하는지 그리고 대화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측정된다. 친구관계는 얼마나 급우가 친절하며 도움을 주는지 물어보고 이 설문에 응답케하여 측정하였다.

다섯째, ‘건강관련행동’은 건강을 촉진하는 행동과 위험행동을 망라하는 영역이다. 건강행동을 구성하는 지표는 아침식사여부, 과일섭취여부, 과체중비율, 운동하는 날의 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위험행동을 구성하는 지표에는 흡연, 음주, 마약, 섹스, 임신과 출산이 있다.

여섯째, ‘주관적행복’의 영역은 주관적 건강, 학교생활만족, 개인행복의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적 건강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의 비율로 측정되었고, 학교생활만족은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대답한 아동의 비율로 측정되었다. 개인의 행복은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직접적으로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부분과 삶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부정적 생각은 주변적응에 대한 질문과 외로움을 느끼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하였다.

### 3. 연구분석틀모형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을 탐구하였다. 우선 앞서 살핀 여섯가지 영역의 세부지표를 설문조사와 국가통계를 통해 완성하는 방식으로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절대적 행복을 파악 측정하였다. 즉 여섯가지 영역의 다양한 지표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보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둘째로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국제비교를 행하였다. 국제비교는 여섯가지 영역의 점수를 OECD국가들 간에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비교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영역을 점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구성부문과 지표를 점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첫 단계로 하나 혹은 복수의 질문에 따라 측정된 지표를 점수로 나타내었다. 이때 만일 복수의 측정질문이 있었다면 단순한 산술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지표의 점수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각 지표의 점수를 더하여 역시 산술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구성부문을 점수화하였다. 그리고 각 구성부문의 점수를 더하고 산술평균을 얻는 방식으로 각 차원의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산술평균을 얻는 과정에서 단위가 서로 다른 다양한 수치의 무차별적인 합산은 단위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영역에서 학업성

취 점수와 교육참여 아동의 비율을 직접 합산하는 것은 무의미한 단위를 낳을 수 있다. 기 때문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수사이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모든 점수를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분포가 되도록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비교통계에서 활용하는 상대점수(z-score)를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교육'영역에서 학업성취 점수와 교육참여 아동의 비율을 직접 합산하는 것은 무의미한 단위를 낳을 수 있다. 이때 각 구성부문을 표준점수로 바꾸면 의미있는 비교가 가능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에 점수가 70이라면 모든 국가의 평균치에서 약 세 개의 표준 편차만큼이나 많이 낮은 점수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측정질문, 지표, 구성부문, 그리고 차원에 이르는 점수를 얻는 과정에서 가중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한 가지 측정질문이 지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다른 측정질문보다 클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배제하고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중치는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유사한 데이터를 쓴 국제비교연구결과 한 질문의 상대적 중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radshaw & Richardson(2007)의 글을 볼 것.

### Ⅲ. 연구결과

#### 1.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

제 1영역인 물질적 행복은 '상대적 빈곤', '일자리', '빈곤'의 세가지 구성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대적 빈곤'은 중위수입의 50% 기준으로 측정되었는데 상대적 빈곤에 처한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은 14.8%에 이르고 있어 OECD 평균인 11.3%를 제법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비율은 한국에서 2.5%인데 평균인 4.9%보다는 매우 낮다.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비율 통계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2005 혹은 2006년 자료) 거의 모든 국가에서 현시점의 상황과는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재의 소유여부를 통해 측정된 빈곤은 16%로 OECD 평균인 25.9% 보다 낮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책의 소유를 통해 파악한 또다른 빈곤의 측정은 한국사회에서 9%로 부유한 국가의 평균(7.8%) 보다는 조금 높다. 종합적으

로 볼 때, 물질적 행복의 차원에서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은 OECD 25국 가운데 상위 10위에 턱걸이하였음을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각 영역의 OECD 비교

국가	물질적 행복	국가	보건과 안전	국가	교육	국가	가족과 친구관계	국가	건강 행동	국가	주관적 행복
폴란드	82.8	미국	80.3	포르투갈	84.6	영국	77.0	영국	73.4	대한민국	71.5
헝가리	85.2	뉴질랜드	80.7	오스트리아	87.9	미국	79.9	핀란드	89.9	영국	85.9
아일랜드	87.1	오스트리아	86.8	이탈리아	88.3	체코	86.9	헝가리	90.3	폴란드	91.4
영국	89.1	아일랜드	91.1	영국	90.0	캐나다	88.8	캐나다	93.3	체코	93.4
미국	89.1	그리스	91.5	스페인	91.3	핀란드	96.8	벨기에	95.6	벨기에	94.8
포르투갈	93.2	헝가리	92.8	뉴질랜드	92.8	오스트리아	97.2	독일	96.5	포르투갈	96.6
그리스	93.9	벨기에	94.7	스위스	94.1	스웨덴	98.0	이탈리아	99.1	캐나다	97.7
일본	95.1	폴란드	95.7	헝가리	94.5	폴란드	98.4	프랑스	99.2	핀란드	98.2
뉴질랜드	95.8	포르투갈	96.4	프랑스	95.0	독일	99.0	스위스	100.6	이탈리아	98.6
이탈리아	96.2	캐나다	97.2	아이슬란드	95.1	프랑스	99.2	스페인	101.6	덴마크	99.3
독일	97.0	영국	98.5	그리스	95.1	대한민국	100.4	체코	102.3	헝가리	99.7
호주	97.6	호주	98.8	노르웨이	97.7	그리스	100.4	오스트리아	102.5	독일	103.4
네덜란드	97.9	일본	99.2	미국	98.3	노르웨이	102.4	그리스	102.6	아일랜드	104.3
프랑스	101.0	독일	100.2	독일	99.7	덴마크	102.7	포르투갈	103.6	스웨덴	104.4
스페인	101.4	체코	101.1	체코	100.2	스페인	103.5	대한민국	106.9	노르웨이	105.5
대한민국	102.6	스위스	101.6	덴마크	102.7	아일랜드	104.2	스웨덴	110.0	스위스	106.5
벨기에	104.0	노르웨이	104.0	네덜란드	104.1	벨기에	106.4	네덜란드	114.2	오스트리아	110.0
캐나다	104.4	프랑스	105.3	스웨덴	105.4	헝가리	106.5	폴란드	118.3	스페인	111.7
오스트리아	104.5	스페인	106.6	아일랜드	105.8	스위스	108.3			네덜란드	112.9
체코	107.1	이탈리아	106.7	호주	108.6	네덜란드	112.8			그리스	114.2
스위스	108.6	대한민국	110.5	폴란드	110.7	포르투갈	115.5				
덴마크	111.9	핀란드	111.5	핀란드	117.1	이탈리아	115.7				
핀란드	117.5	네덜란드	112.7	대한민국	120.1						
노르웨이	117.6	아이슬드	115.7	벨기에	120.9						
스웨덴	119.4	스웨덴	120.2								
평균	100		100		100		100		100		100

제2영역은 ‘보건과 안전’인데 영아건강, 예방접종, 사고사의 세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건강은 영아사망률과 저체중아의 비율로 측정된다.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5.3(1000명의 영아 당 사망 수)명인데 이는 OECD 평균(4.6명) 보다 조금 높은 수치이다. 그리고 2.5kg이하 저체중아의 비율은 한국에서 4.1% 로 전체평균 6.3% 보다는 낮다. 두 번째 구성요소인 예방접종을 보자. 홍역, 소아마비, DPT 접종 여부로 측정되는데 한국 어린이의 예방접종 비율은 모두 98%이상으로 OECD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번째 구성요소인 사고사는 자살, 사고사(인구 10만명당)를 포함하는 것인데 한국사회의 사고사는 자살(4.9명/인구10만명)과 사고사(8.0명/인구10만명)를 합쳐 12.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수치는 전체 평균 14.3명보다 조금 낮다. 종합적으로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은 비교적 높아서 전체 평균을 100으로 했을때 110.5에 해당한다. 전체 순위로는 OECD 25개국 가운데 5위에 해당한다.

제3영역은 교육이다. 교육은 학업성취, 교육참여, 학업열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성취는 OECD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의 읽기, 수학, 과학의 세가지 영역 시험 점수로 측정되었는데 한국은 각 과목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로 교육참여는 15-19세 청소년의 교육지속 여부로 측정되었는데 한국의 교육지속비율은 91%로 OECD평균 83%를 크게 상회한다. 세 번째 구성요소인 학업열망은 역설적으로 15세 아동 가운데 미숙련 일자리를 예상하는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되었다. 한국의 아동 가운데 자신이 미숙련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은 26.6%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28.4%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은 높은 PISA 시험점수와 교육참여 비율에 힘입어 OECD 24개국 가운데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120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점수이다.

행복지수의 제4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가족과 친구관계’이다. 가족구조, 부모관계, 친구관계의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구조는 홀부모 가족과 의붓가족의 여부로 측정된다. 한국의 아동 가운데 홀부모가족에 속한 비율은 6.1%로 전체 평균 12.3%보다 매우 낮다. 그리고 의붓가족에 속한 비율 역시 한국에서 1.8%로 전체평균인 8.1%보다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과 부모관계는 함께 식사하는 비율과 대화하는 비율로 측정되었다. 1주일에 서너번 이상 부모와 저녁식사를 같이하는 학생의 비율을 측정해 보면 한국의 아동은 68.4%가 그러하다고 답하였는데 OECD 평균인 78.7%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상대적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등은 그 비율이 90%를 넘고 있다. 그리고 부모와 일주일에 3-4번 이상 대화하는 아동의 비율을 보면 한국은 58.3%로 나타났다. 이 또한 OECD 평균인 61.3% 보다는 낮은 편이다. 간단한 두가지 지표로 측정한 한국사회의 아동-부모관계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임을 확인하였다. 세번째 구성요소는 친구관계이다. 자신의 급우가 친절하고 도움을 준다고 답한 아동의 비율로 측정되었다.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은 59.6%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OECD평균은 65.3%로 한국의 어린이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친구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한국어린이-청소년의 가족친구관계는 중위권에 해당한다. 가족구조에서는 매우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부모관계와 친구관계에서 중하위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어, 전체 평균을 100으로 삼았을때 100.4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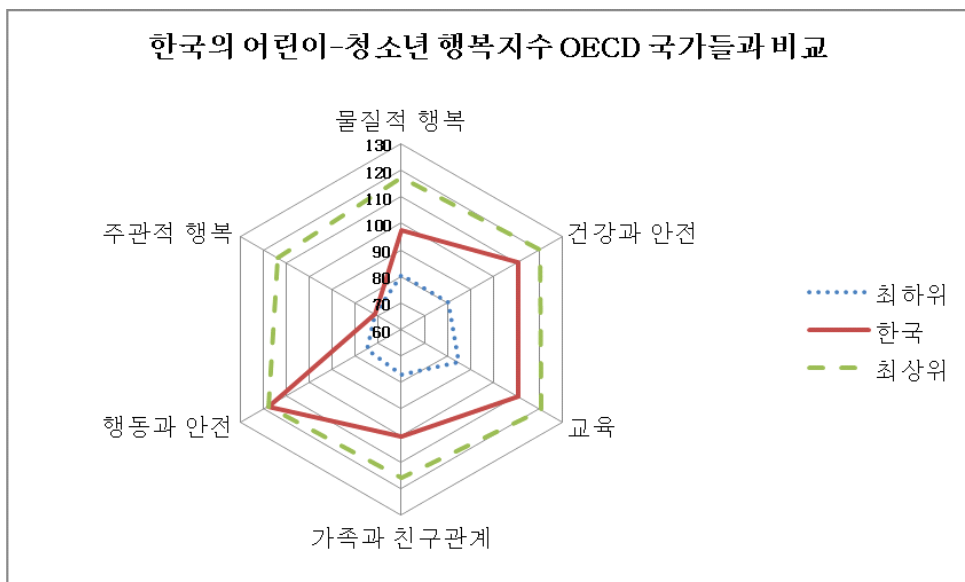
행복지수의 제5영역은 ‘건강관련 행동위’이다. 이 영역은 건강을 위한 행동과 건강을 해치는 위험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과 연관되는 행동으로는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을 보았고 비만학생이 몇 퍼센트인지 측정하였다. 한국학생 가운데 등교전에 규칙적으로 아침식사를 한다고 답한 비율은 80.1%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OECD평균은 65%). 체질량지수 25이상 비만인 학생의 비율은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9.6%였는데 OECD 평균은 12.8%였다. 위험행동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학생은 비교적 안전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의 비율은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한국은 9.2%, 전체평균은 10.9%), 마약사용 비율과 10대의 출산율에서 전체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은 건강행위에서 평균을 상회하고 위험행동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두 요소를 함께 고려한 결과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전체 평균을 100으로 삼았을때 106.9를 기록했다

행복지수의 마지막 제 6영역은 주관적 행복이다. 주관적 행복은 주관적 건강, 학교생

활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행복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가장 논쟁적인 결과를 낳은 부분인데 한국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주관적 행복도를 보여 주었다. 우선 주관적 건강을 측정한 부분에서 한국의 어린이-청소년들은 자신이 별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4.4%나 되어 전체평균인 14.9%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 수치가 20%를 넘는 국가는 한국과 영국뿐이었는데 한국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둘째로 학교를 좋아한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는데 한국의 학생은 29.9%가 그러하다고 답하여 전체평균(23.6%) 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30%를 넘는 학생들이 학교를 좋아한다고 답한 국가는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뿐이었다. 셋째로 주관적 행복은 자신이 평균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과 부정적인 사고의 유무로 파악하였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한국에서 55.4%에 불과하였다. 전체평균이 84.8%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은 스스로 매우 불행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이 비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낮은 국가인 폴란드의 80%보다도 무려 25%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더불어 한국 어린이-청소년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학생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주관적인 행복의 측면에서 한국 어린이-청소년은 매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점을 평균으로 할 때 71.6에 그쳤고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행복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은 중요한 연구결과이다. 하지만 그 탐구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행복지수의 여섯 가지 영역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은 형태가 된다. 각 부문을 논할 때 언급했지만 ‘보건강과 안전’ ‘교육’ 그리고 ‘건강행동과 위험’의 측면에서 본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은 OECD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다. 보건과 안전은 네덜란드와 스웨덴을 포함하는 북서유럽의 국가들과 같은 수준을 보이면서 110.5점으로 5위에 위치하고 있다. 교육영역에서 1위인 벨기에 보다는 조금 낮지만 평균합계 120.1점으로 3위인 핀란드를 상회하는 2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건강행동에서는 106.9점으로 폴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물질적 행복과 가족·친구 관

계는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물질적 행복에서는 102.6점으로 전체평균을 약간 상회하면서 대부분의 북서유럽국가들에 뒤이어 약 10위권에 해당하였다. 가족과 친구관계 영역에서는 100.4점으로 전체국가들 가운데 정확하게 중간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감하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차원인 ‘주관적 행복’에서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원인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위치는 다른 국가와 매우 차이가 나는 마지막 등위를 차지하고 있다. 71.5점은 두번째로 낮은 영국보다도 약 15점이 차이 나는 점수이다. 이 점수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0으로 표준화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71.5라는 점수는 평균에서 약 세 개의 표준편차나 뒤진 것으로 극히 낮은 점수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어린이-청소년들이 교육 부분에서는 모든 국가의 평균보다도 2개 정도의 표준 편차(120.1)만큼이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체감하는 주관적 행복감은 극단적으로 하위라는 사실은 교육 정책에 주는 함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특히 주관적 행복 영역에서도 ‘주관적 건강’ 그리고 ‘외로움’ 등 항목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1>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



## IV. 논의 및 결론

우리는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을 건강과 안전, 물질적 풍요, 교육과 사회화,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사랑과 관심의 측면에서 조명하고 현 세대의 한국 어린이-청소년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이 처한 위치를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의 행복 정도를 본격적으로 국제비교해 본 결과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밝혔다. 우선, 여섯 가지 영역 중에서 ‘교육’, ‘보건과 안전’ 그리고 ‘건강관련 행동’에서 한국의 어린이-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리고 ‘물질적 행복’과 ‘가족 친구 관계’에서는 중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관적 행복’에서는 한국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졌는데,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본 연구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행복지수의 구성에 대한 문제이다. 행복지수의 국제비교를 위해 우리가 차용한 UNICEF의 비교들은 ‘행복’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화와 다양한 지표를 포괄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이 당면하는 현실이 가지는 특수성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이 주관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연구결과는 다른 사회와의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는 것인데 현재 연구들에 포함된 지표들로는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즉, 한국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실제 주관적 행복이 낮은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문화적 혹은 제도적 변수들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거꾸로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발견된다면 이를 다른 국가에 적용함으로써 전체 국제비교의 지표설계가 보완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연구’가 되풀이되어 그 결과가 축적된다면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정책목표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참고문헌

- PISA(The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www.oecd.org](http://www.oecd.org)
- CWI (Child Well-being Index) <http://www.fcd-us.or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www.kihasa.re.kr](http://www.kihasa.re.kr)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www.kosis.kr](http://www.kosis.kr)
- 김신영 백혜정. 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 [한국사회학] 제42집 6호 (140-173)
- 김인춘, 2007, ‘2차 대전 후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복지국가와 생산체제’,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15집 2호 (299-331)
- 보건복지가족부. 2008. [아동-청소년 백서].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 [한국의 주요아동지표].
- 유석춘, 장미혜, 배영. 2002. ‘사회자본과 신뢰: 한국, 일본, 덴마크, 스웨덴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동서연구], 14집 1호(101-135)
- Aborn, M. 1985, ‘Statistical legacies of the social indicators movem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Las Vegas, Nevada.
- Antonovsky, A. 1979. ‘*Health, Stress and Coping*’,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Antonovsky, A. 1987, ‘*Unraveling The Mystery of Health-How People Manage Stress and Stay Well*’,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Ben-Arieh, Asher. 2006. ‘*Measuring and Monitoring the Well-being of Young Children around the World*’, Paper commissioned for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07, *Strong Foundations: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 Benavot, Aaron. 1983. ‘*The Rise and Decline of Vocational Education*’, *Sociology of Education*, Vol. 56, No. 2 (Apr., 1983), pp. 63-76
- Bradshaw, J., Hoelscher, P. Richardson, D. 2007, ‘*An Index of Child Well-Being In the European Un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80: 133-177
- Columbo, S. A. 1986. ‘*General well-being in adolescents: Its nature and measurement*’, (Doctoral dissertation, Saint Louis University, 1984).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6, 2246B.
- Duncan, G., Brooks-Gunn, J. 2000. ‘*Family Poverty, Welfare Reform,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 1, 188-96.
- Guttmann, A., Dick, P., To, T. 2004 ‘*Infant Hospitalisation and Maternal Depression, Poverty and*

- Single Parenthood – A Population-based Study*,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0, 57-75.
- Hood, Suzanne. 2007. *'Reporting on Children's Well-Being: The State of London's Children Repor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0: 249-264
- Kogan, LS, Jenkins, S. 1974. *'Indicators of child health and welfare: development of the DIPOV index'*, New York, Center for Social Research, Graduate Center, City University of New York; distributed by Columbia University Press, iv, 82, 35, 38, 16 p. illus.
- Layard, Richard. 2003. *'Happiness: Has Social Science a Clue?'*, Lionel Robbins Memorial Lectures 2002/3. Delivered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 Land, Kenneth C., Vicki L. Lamb, Sarah O. Meadows, and Ashley Taylor. 2006. *'Measuring Trends in Child Well-being: An Evidence Based Approa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 Lippman, Laura. 2005. *'Indicators and Indices of Child Well-Being: A Brief History'*, A KIDS COUNT Working Paper, The Annie E. Casey Foundation Baltimore, Maryland
- Lippman, Laura. 2007. *'Indicators and Indices of Child Well-Being: A Brief American History'*, Social Indicators Research, 83:39-53
- Meyer, John W., Tuma, Nancy Brandon, Zagórski, Krzysztof. 1979. "Education and Occupational Mobility: A Comparison of Polish and American Me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4, No. 4 (Jan., 1979), pp. 978-986
- Published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ollard, E. L., Lee, P. D. 2003. *'Child Well-Being: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Centre for Child Well-Being, <http://www.childwellbeing.org/c-pdfs/positive.pdf>
- Santos Pais, M. 1999. *'A Human Rights Conceptual Framework for UNICEF'*, Innocenti Essay 9. Florenc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 UNICEF 2007.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Report Card 7.
- UNICEF 2006. *Comparing Child Well-being in OECD Countries: Concepts and Methods*. Innocenti Working Paper.
- Yang, Yang. 2008. *'Social Inequalities in Happiness in the U.S. 1972~2004: An Age-Period-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73. No.2: 204-226.
- Zill, N., O.G. Brim. 1975, *'Childhood social indicators'*, Newsletter.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Fall.
- Zill, N., Sigal, H., Brim, O.G. 1983. *'Development of childhood social indicators'*, In Edward F. Zigler, Sharon Lynn Kagan, and Edgar Klugman(Eds), Children, families, and government: Perspectives on American social policy (pp. 188-222).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과  
사회적 권리의 불균등 분포:  
사회적 관계망의 관점에서



염 유 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서 효 정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 2

### 발 표

#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과 사회적 권리의 불균등 분포: 사회적 관계망의 관점에서

염 유 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서 효 정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이 논문은 크게 보아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행복 지수를 이용하여 한국 청소년의 행복 정도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고 청소년들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이 어느 나라들과 비슷하고 다른 지를 검토한다. (2) 행복 지수를 구성하는 여러 부문 중에서도 특히 최하위의 열악한 점수를 보이는 ‘주관적 행복’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어떠한 사회 관계망에 배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더 나은 ‘주관적 행복’을 누리고 있는 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어떻게 아동 보호권과 또는 아동 발달권과 관련하여 한국 청소년 사이에서 사회관계망이 불균등하게 발전되고 있는 가를 짚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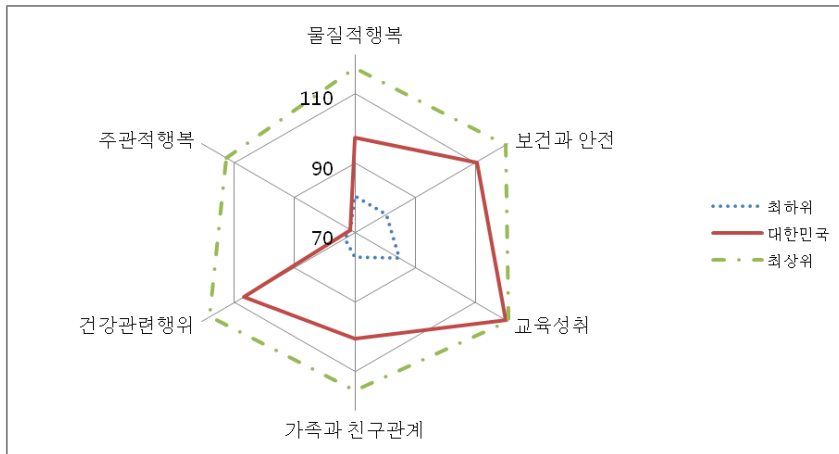
## (1) 한국 청소년 행복의 특이 사항

박종일(2009)등은 어린이들의 기본 인권을 선언하는 유엔아동인권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제공하는 여러 조항들로부터 출발하여 개발된 2006년 유니세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방정환 재단의 지원을 받아 국가 통계외에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의 여섯 가지 영역에 걸쳐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을 측정하여 검토하였다: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성취, 가족과 친구관계, 건강관련행위, 주관적 행복. 그 결과 ‘교육성취’, ‘보건과 안전’, 그리고 ‘건강관련행위’에서 한국 어린이의 행복도는 최상위권이었고, ‘물질적 행복’과 ‘가족과 친구 관계’에서는 중위권, 마지막으로 ‘주관적 행복감’ 영역에서는 전체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에 위치해 있음이 밝혀졌다. 이를 그림으로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sup>1)</sup>.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 청소년들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다

1) 여기에서 제시되는 점수는 모든 국가의 점수들의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 되도록 표준화된

른 모든 부문에서는 최상위나 중상위를 보여주지만 유독 ‘주관적 행복’ 부문에서는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보건과 안전은 매우 좋으며 교육 성취도도 매우 높은 데 반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최하위인 것이다. 주관적 행복감을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주관적 행복감을 구성하는 여섯 개의 항목을 간추리면 표 1과 같다.

여섯 개의 항목 중 한국 청소년들은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라는 항목에 ‘보통이다’이상으로 답한 비율이 10.1%로서 비교 대상 16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점한다. 또한 ‘학교생활 만족’이나 ‘어울림’에서도 비교적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느끼는 건강 정도나 삶에 만족하는 정도,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는 모두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생활에도 그런대로 만족하며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소속감도 느끼지만 무척 외로움을 타고 스스로 느끼기에 건강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삶에 만족하지도 않는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소속감도 느끼는 청소년 비율은 높는데 어떻게 외로움을 타는 비율이 높은지, 학교생활에는 만족하는 비율은 높지만 삶에 대해 만족하는 청소년 비율은 왜 낮은지 등은 앞으로의 연구가 초점을 맞추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그림 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OECD 국가들과 비교

점수이다. 따라서 만약에 점수가 70이라면 전체 평균에서 세 개의 표준 편차만큼이나 뒤떨어지는 점수로 매우 저조한 것이다.

[표 1] 주관적 행복 영역 내의 국가별 비율

(단위:%)

국가	주관적 불건강	학교생활만족	삶의 만족	소속감	어울림	외로움
영국	22.6	19	83.5	6.8	8.7	5.4
핀란드	11	8	91.6	5.5	8.4	6.2
헝가리	14.9	26.3	84.4	9.3	7.6	7.3
벨기에	13.1	17.9	87.8	7.9	15.6	6.4
독일	14.9	29.5	85.4	6.1	11.4	6.2
이탈리아	12.5	13	85.2	4.9	6.2	6
스위스	9.1	22.3	89	7.1	11.7	6.6
스페인	9	22.8	87.8	3.3	8.9	4.4
체코	11.8	11.6	83.4	9.7	6.4	7
오스트리아	15.6	36.1	88.1	5.8	8.2	7.2
그리스	10.1	29.5	92.2	6.3	8.3	6.5
포르투갈	19.1	31.1	80.5	6.4	11.7	5
대한민국	24.4	29.4	55.4	10.1	8.2	20.1
스웨덴	13.2	21.6	86	5.2	4.9	6.7
네덜란드	17.2	34.4	94.2	3.9	6.9	2.9
폴란드	14.4	17.3	80	8.2	9.9	8.4

\*주관적 행복 영역은 총 6개의 항목인 주관적 불건강, 학교생활만족, 삶의 만족, 소속감, 어울림, 외로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된 척도는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설정되었다.

\*주관적 불건강은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로 '별로 그렇지 않다'이하를 포함

\*학교생활만족은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로 '매우 그렇다'를 포함

\*삶의 만족은 '나의 삶에 만족한다'로 '다소 그렇다'이상을 포함

\*소속감은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로 '보통이다'이상을 포함

\*어울림은 '나는 주변 사람과 잘 어울린다'로 '보통이다'이상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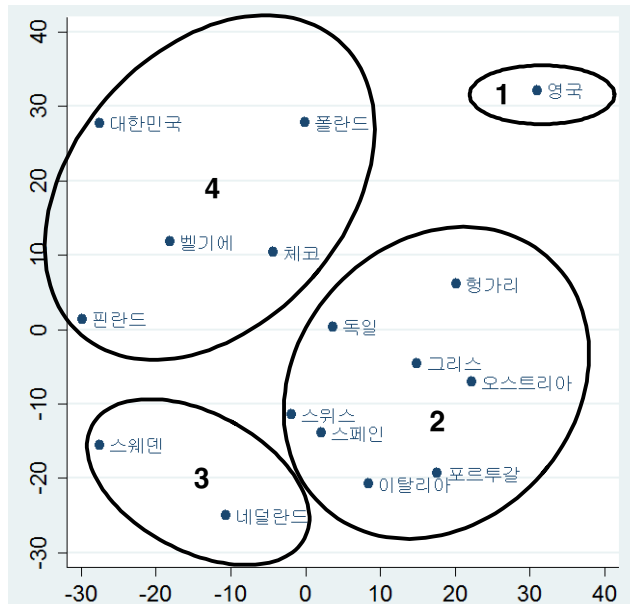
\*외로움은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로 '다소 그렇다'이상을 포함

이 논문에서는 곧장 주관적 행복이 어떻게 낮은 점수를 보이는 지를 검토하기 보다는 (1) 과연 다른 16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국가들은 어떠한 국가들인지,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보이는 국가들은 존재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2) 우리 나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주관적 행복을 느끼거나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은 누구인지를 사회 관계망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즉, 어떠한 사회 관계망에 배태

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주관적 행복을 느끼게 되는 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시도는 단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청소년들의 행복이나 인권 상황이 결정된다고 보는 시각을 벗어나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처해 있더라도 배태되어 있는 사회 관계망에 따라 어떻게 행복의 정도가 달라지는 지를 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2) 국제 비교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들에 대한 각 영역의 표준화된 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국가들에 대한 영역별 분석을 다차원척도(Multidimensional Scaling)를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각 영역의 표준화된 값에 대한 국가별 비교는 2차원 척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고 [그림 2]는 이를 요약한다. [그림 2]에서 각 국가들은 여섯 개의 행복 지수 부분별 점수에 의하여 군집 지어 나타내며 표 2는 해당 군집에 속하는 국가별 영역에 대한 평균값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행복지수 영역별 다차원분석 결과 그림



[표 2] 행복지수 영역별 다차원분석 결과에 따른 군별 평균값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성취	가족과 친구관계	건강 관련행위	주관적 행복
1군	89.10	98.50	90.00	77.00	73.40	85.90
2군	97.50	97.83	91.94	105.76	99.56	105.09
3군	108.65	116.45	104.75	105.40	112.10	104.40
4군	102.80	102.70	113.80	97.78	97.88	89.86

그림 2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우리는 범주화된 국가별로 몇 가지의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1군에 단독으로 속하는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표 2]에서 보여지는 수치화된 사실과 같이 모든 행복지수의 영역에 있어서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물질적 행복에서는 Hood(2007)가 런던의 아이들은 빈곤 속에서 사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밝힌 사실과 같이 89.1이라는 하위권에 머무르는 값을 나타냈다. 한편 보건과 안전에서는 98.5를 기록하며 중위권 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는 영국이 오랜 기간 동안 어린이들을 취약집단(vulnerable people)으로 간주하여 그들을 위한 공공정책을 펼쳐 왔던 사실(Hood, 2007) 과 관련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90.0), 가족과 친구관계(77.0), 건강관련행위(73.4), 그리고 주관적 행복(85.9)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영국이 하위권에 위치한다는 것을 확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Bradshaw 외(2007)는 물질적 결핍이 다른 행복지수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낮은 물질적 행복의 수준이 곧 타 영역들의 값 역시 떨어뜨린다고 말한다. 따라서 교육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Hood, 2007)에서 비롯된 낮은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참여율을 비롯하여 가족의 분열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가정적인 모습의 퇴보와 친구들과간의 높지 않은 신뢰감 정도, 건강행위보다는 흡연, 음주와 같은 위험행위에 노출이 더 높은 정도와 많은 연구들이 물질적 결핍이 좋지 않은 건강을 초래한다는 것을 밝힌 사실(Duncan 외, 2000, Guttman 외, 2004), 그리고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Bradshaw 외, 2007)으로 영국의 행복지수 실태를 해석 할 수 있다. 최초의 의료제도를 도입으로 명실상부 복지국가로 떠오른 영국이 이와 같이 좋지 않은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근래에 발견되는 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불균형의 대립적인 문제의 발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군에 해당되는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로 총 8개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국가들은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가별 구체적인 수치는 원 자료에서 발췌). 물질적 행복에 있어서는 헝가리(85.2)와 포르투갈(93.2)은 낮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그 외의 국가들은 평이한 수준을 나타내고, 보건과 안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상 정도의 위치를 기록하였다. 교육에 있어서는 포르투갈(84.6), 이탈리아(88.3), 그리고 스페인(91.3)을 제외한 국가들은 중위권 이상을 나타냄과 더불어 가족과 친구관계에 있어서도 해당 8개국들이 상위권에 위치하는 수치를 기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건강행위에 있어서는 헝가리(90.3)를 제외한 7개의 국가들이 중위권을 나타냄과 동시에 주관적 행복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중위권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헝가리와 포르투갈을 제외한 2군에 해당하는 6개의 국가들은 행복지수에 있어서 평이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보건과 안전, 가족과 친구관계,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주관적 행복이 높게 나타난다는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결과 역시 Bradshaw 외(2007)가 앞서 주장한 물질적 행복과 그 외의 영역의 비례관계를 반영하여 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의 행복지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가족과 친구관계와 주관적 행복에 있어 눈에 띄는 수치를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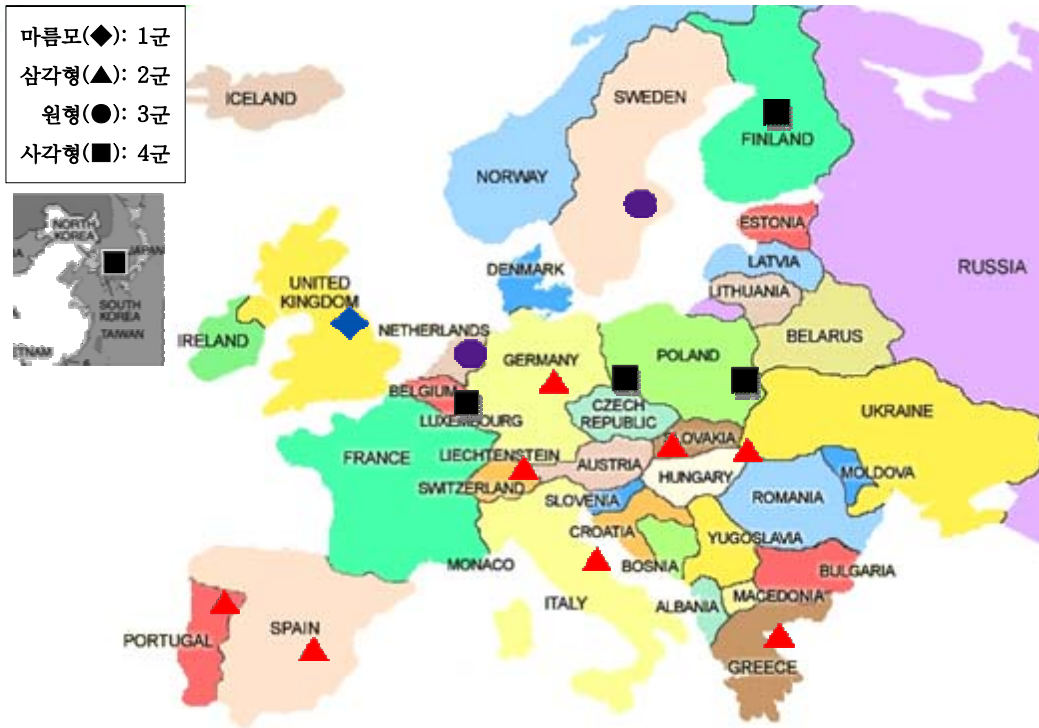
스웨덴과 네덜란드로 구성된 3군과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북쪽에 위치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여섯 가지의 행복지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이들이 모든 행복지수에서 최악의 수치를 나타낸 영국과는 완전하게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국가별 구체적인 수치는 원 자료에서 발췌). 비록 네덜란드는 물질적 행복(97.9)에서, 스웨덴은 가족과 친구관계(98.9)에서 중간 정도 수준의 수치를 나타냈지만 사실상 국가들의 평균치인 100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있기에 이 두 값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있어 제한을 둘 수 없다. 그 외 영역에 있어서는 두 국가 모두 현저하게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 두 국가들의 어린이-청소년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행복지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두 국가의 대한 행복지수의 평균값을 보여주는 [표 2] 역시 다른 군들에 비해 현저하게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값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국가가 공통적으로 20세기에 성공적인 산업화로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함과 동시에 중간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Benavot, 1983; 김인춘, 2007)과 더불어 제도와 사람에 있어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이 관찰(유석춘 외, 2002)되는 현상에서 이들이 가장 이상적인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군에 속하는 한국, 핀란드, 벨기에, 체코, 폴란드는 사실상 각기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지만 한 편으로는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다(국가별 구체적인 수치는 원 자료에서 발췌). 물질적 행복에 있어서는 최하에 위치한 폴란드(82.8)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상위권 점수를 기록하고 보건과 안전에 있어서는 한국(110.5), 핀란드(111.5), 그리고 체코(101.1)가 상위권에 있는 반면 벨기에(94.7)와 폴란드(95.7)는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위치한다.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다섯 개의 모든 국가가 100점 이상을 기록하며 상위권에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들의 교육수준과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가족과 친구관계나 건강행위의 행복지수 영역에 있어서는 벨기에(106.4)가 높은 수준의 가족과 친구관계 그리고 폴란드(118.3)가 최상의 건강행위를 나타낸다는 것과 더불어 한국(100.4, 106.9)과 체코(86.9, 102.3)는 두 행복지표에 있어 중·하 수준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특징이나 공통점을 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국이 교육에서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주관적 행복에서 최하를 기록하였던 것과 같이 핀란드, 벨기에, 체코, 그리고 폴란드에서도 같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 2]의 군별 평균값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이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지만 주관적 행복은 최하위권에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해당 군에 속하는 국가들은 외세의 잦은 침략과 식민통치로 인하여 독립한 역사가 길지는 않기에 핀란드를 제외한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소득수준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GDP 역시 낮으며 복지제도 또한 좋지 않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교육열이 높아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 그리고 법 제정 (Meyer 외, 1979; Benavot, 1983)등으로 인하여 교육수준이나 학업성취도의 측면에 있어서는 조사 대상 국가들 중 가장 상위권에 위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림 2]와 [표 2]에 근거하여 볼 때, 우리는 [그림 3]과 같이 관찰된 16개 국가들의 지리적 위치 및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1군에 단독으로 속하며 가장 좋지 않은 행복지수 수치를 나타내었던 영국은 서유럽의 섬에 위치하고 가장 많은 조사 대상 국가들을 포함

함과 동시에 평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던 2군은 남유럽에 전반적으로 위치한다. 가장 바람직한 행복지수의 결과를 보여주었던 3군인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북유럽, 그리고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그리고 건강 및 위험행위는 최상의 수치를 기록하지만 주관적 행복에 있어서는 최하를 나타내었던 4군은 대부분 유럽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지수 영역의 표준화 된 값들을 다차원척도를 통해 국가별로 구분하였던 분석이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유사한 범주화가 가능한 사실을 시사해준다.2)



[그림 3] 국가별 구분에 따른 지도 분포

2) 필자들은 EU 국가에서의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오랜 기간 비교·분석한 영국 학자 브래드쇼(Bradshaw) 교수에게 이 결과를 보여주고 토론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본 연구를 매우 흥미롭게 받아들였으며 영국의 사례를 포함한 우리의 해석에 일반적으로 동의하였다.

### (3)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 연결망 특성: 잠재적 집단 분석

국내외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들의 좁게는 사회 연결망 넓게는 사회 자본이 청소년들의 건강이나 성적, 우울증, 스트레스, 진로등 청소년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시기에 가장 잘 형성이 되어야 하는 건강은 사회적 지지, 즉 사회 자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으로 밝혀져 왔으며, 건강을 직간접적으로 좌우하는 건강행동 역시 사회 자본에 영향을 받음이 연구되어 왔다(Langlie, 1977). 또한 건강증진행동은 증진하고 흡연 등 비행과 관련이 되는 건강위험행동은 저하시키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강조(김현숙, 1998)되었으며, 이 지지에 대한 ‘방어효과’에 대한 주장 역시 도출이 되었다(Resnick et al.,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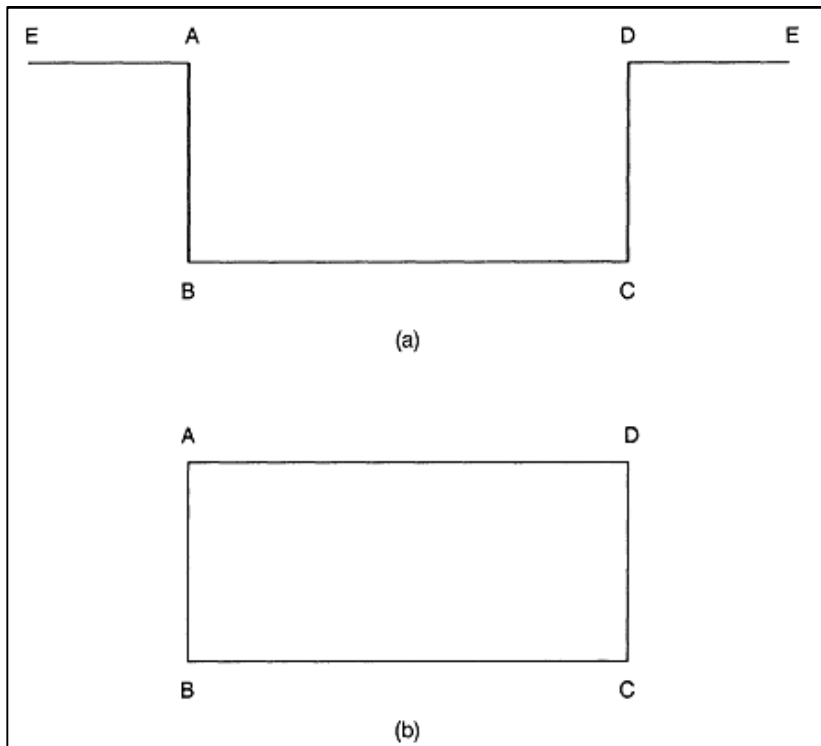
가족, 학교, 친구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자본의 종류들 중에서 가족은 어린이 혹은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자본(Teachman et al., 1997)로 다양한 연구들이 전통적인 양친가족 형태가 아닌 가족의 형태에 놓인 아동들이 낮은 수준의 사회자본을 가짐과 동시에 이는 곧 낮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McLanahan, 1985; McLanahan et al., 1988; Astone et al., 1991, 이선애, 2009). 가족의 영역이 아닌 학교에서 친구나 선생님과 같은 사회자본이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좌우한다는 사실 역시 Rosenthal et al(1968), 임형진(1988), 김경식(2006) 등의 선례연구들을 통해 밝혀진바 있다.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 등의 경험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는 그들의 단·장기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그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 청소년들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입시와 성적이라는 것으로 인해 타국가의 그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2003). 스트레스의 발생과 동시에 우울증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다양한 부정적인 요소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과 동시에 좋지 않은 대인관계, 즉 사회자본과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Kandel et al., 1991; 강경미, 1994; 한상철 외; 2003).

청소년의 진로 역시 국내에서는 대학입시나 성적과 함께 움직이는 변수로 다양한 진로에 대한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에 진로에 부모라는 사회자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Blustein et al., 1991).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닌 사실을 보여주는 듯이 금명자(2003)의 연구는 청소년들과 부모가 진로에 대한 상호작용을 끊임 없이 하면서 부모로부

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근의 김수리 외(2007)의 연구 역시 부모의 역할이 청소년의 진로에 크게 작용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은 한국 청소년의 상황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제약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사회 연결망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인 연결망의 닫힌 구조(closure)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연결망의 닫힌 구조는 콜만이 사회 자본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대표적인 예를 든 사회 연결망의 한 특성이다(Coleman 1988). [그림 4]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콜만이 사용했던 그림이다. [그림 4]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사회 연결망을 보여주고 있다. (a)의 경우에는 서로 친구인 학생 B와 C의 학부모인 A와 D는 서로 모르는 경우이고 (b)의 경우에는 학부모인 A와 D도 서로 아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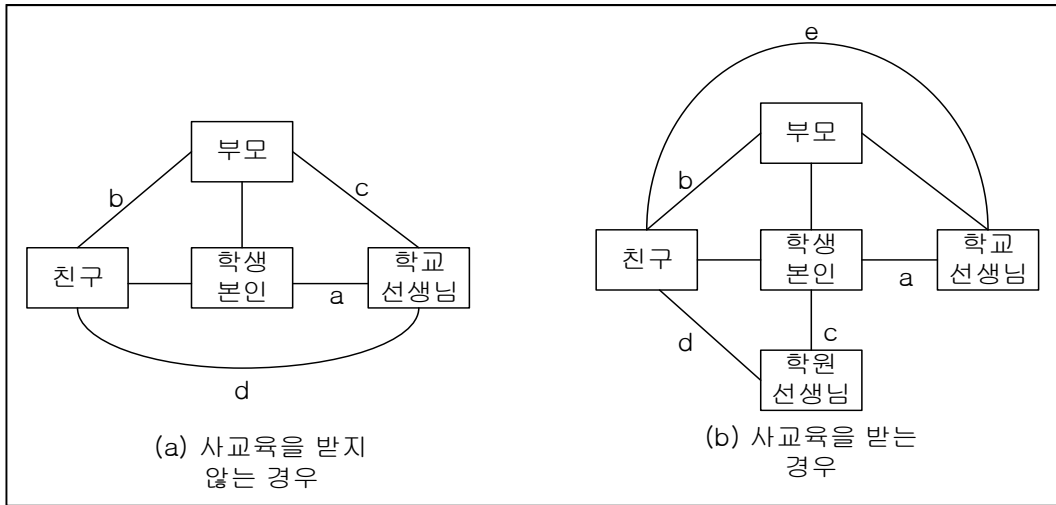


[그림 4] 사회 연결망의 닫힌 구조

(a)의 경우와는 달리 (b)의 경우에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나 통제등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이 중시하는 여러 사회규범등이 (b)의 경우에는 훨씬 더 일관적이고 강한 정도로 실행되어질 수 있다. 콜만은 (b)와 같은 연결망을 닫힌 구조의 연결망(network with closure)이라고 명명하고 대표적인 사회 자본의 한 형태로 소개하였다. 이렇게 원래 제안되었던 사회 자본이라는 개념은 한 개인에게 속하는 어떠한 개인 속성(individual attributes)이 아닌 여러 개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창발하는 실체였지만 그간의 많은 실증 연구에서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의 숫자만 가지고는 위와 같은 닫힌 속성을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 제약은 사회 관계망을 검토하는 데 있어 한국의 청소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가 빈번하게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과의 관계.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사교육이 선택이 아닌 당연한 교육 과정의 하나가 된 지금, 사교육 선생님과 관계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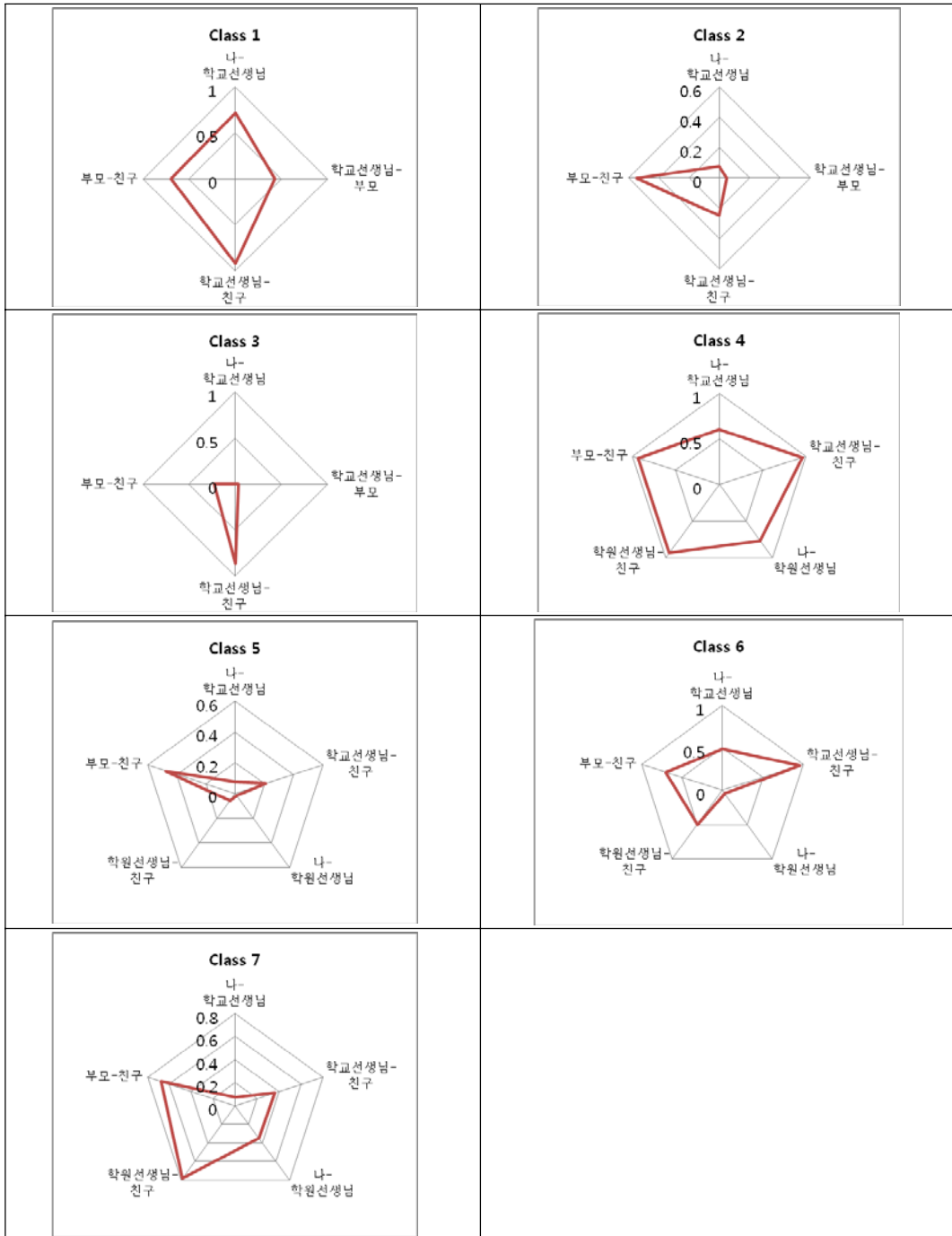
한국 방정환 재단의 ‘한국 청소년 행복 지수’ 자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교육 선생님과 관계를 포함하여 사회 관계망의 닫힌 구조를 측정하였다. [그림 5]의 (a)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들의 가능한 사회 관계망을 정리한 것이다. ‘부모-학생 본인간의 관계’와 ‘친구-학생본인’간의 관계는 사이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료로 활용하지는 않고 나머지 a, b, c, d 네 개의 관계망이 우호적으로 존재 하는 지 그렇지 않는 지만을 측정하여 닫힌 구조를 측정하였다. [그림 5]의 (b)는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가능한 관계망으로서 그림에서 보여지는 a, b, c, d, e 다섯 개의 관계망이 우호적으로 존재하는 지를 측정하였다.



[그림 5] 방정환 재단 자료에서 측정한 사회 관계망 종류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관계망에 비추어 어떠한 유형들이 존재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잠재적 집단 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의 경우 방정환 재단 자료에서는 네 가지의 관계망이 존재하는 가를 각각 측정하였으므로 네 가지 종류의 연결망이 모두 우호적으로 존재하는 학생으로부터 네 가지 가능한 종류의 연결망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학생까지 모두 16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 $2 \times 2 \times 2 \times 2 = 16$ ). 잠재적 집단 분석이라는 통계 기법은 이 16가지 가능한 유형 가운데 과연 실증적으로 존재하는 유형은 어떠한 것들인 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잠재적 집단 분석의 결과 [그림 6]과 같이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는 3가지의 유형이(class 1부터 class 3까지),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는 4가지의 유형이(class 4부터 class 7까지) 존재함이 밝혀졌다 (두 모형 모두 p-value가 0.6이상으로 data fitting이 매우 좋다).





[그림 6] 잠재적 집단 분석에 따른 그룹별 범주형 그래프

위 그림에서 원점에서 각 모서리로 이루어지는 선의 길이는 0부터 1사이이며 그것은 그 집단 내에서 그 모서리에 해당하는 관계망을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그룹 6에 속한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의 관계는 우호적이지만 ‘자기 자신과 학원 선생님’과의 관계가 우호적인 학생은 거의 없으며 ‘학원 선생님과 자기 친구들’간의 관계가 우호적인 청소년의 비율은 약 50% 정도이다. 따라서 각 그룹의 관계망을 표현하는 다각형의 면적이 그 그룹의 관계망의 단한 구조 정도를 보여주게 된다. 이 기준으로 보면 그룹 4가 가장 많은 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뒤를 그룹 1이 잇게 된다. 그 뒤를 7 그룹과 6그룹, 2 그룹이 이으며 그룹 5와 3이 가장 적은 단한 정도를 가지고 있다. 크게 세 범주로 나눈다면 (4), (1,7,6), (2,5,3)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4) 한국 청소년 연결망의 단한 정도와 주관적 행복

표 3은 일반적인 사회 경제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위에서 논의한 청소년들의 관계망 유형에 따라 주관적 행복의 정도가 체계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관적 행복감’을 이루는 여섯 가지 항목인 주관적 건강, 학교 생활 만족, 삶의 만족, 소속감, 어울림, 외로움 모두에 걸쳐 학생 자신이 인지하는 계층(상, 중, 하), 부모의 직업 여부, 아버지의 학력(중졸 이하, 전문대졸 이하, 대학원졸 이하)등을 통제하고나서도 일반적으로 위에서 나눈 (4), (1,7,6), (2,5,3)의 순서대로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 자신이 보고한 ‘주관적 건강’(5점 척도, 표1 참조)의 예를 들면, 사회 경제적 요인을 통제 하지 않았을 경우 집단 4가 집단 2보다 약 0.6 ( = 0.28+0.32) 정도의 척도로 더 건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사회 경제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약 0.5 ( = 0.19+0.31)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섯 가지 항목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집단 4가 가장 높은 주관적 행복 정도를 보이며 집단 3이나 집단 5가 가장 낮은 주관적 행복 정도를 보고하였다. 표 3은 또한 추가적으로 ‘성적’, ‘가출 충동’, ‘자살 충동’, ‘흡연’, ‘음주’에 대한 분석도 추가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성적’에 관하여 흥미로운 점은 사교육 여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원 선생님과 자신’ 또는 ‘학원 선생님과 친구’들의 단한 관계 정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성적이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성적 변수는 학급의 등수를 백분율 한 것이므로 낮을수록 성적이 좋은 것임) 그 중에서도 월등히 좋은 집단은 역시 집단 4이다. 학원을 다니지만 자신과 학원 선생님 관계가 별로 좋지 않거나 친구들과 학원 선생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은 집단 5는 일단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하고 나면 그룹 1과 성적 차이도 보이지 않는다(p-value가 0.167). 흡연이나 음주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점은 다른 변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집단 2와 집단 5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집단 2만이 다른 모두 집단과는 달리 음주나 흡연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집단 2와 집단 5는 모두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을 포함하는 닫힌 구조가 매우 약한 청소년들이지만(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을 포함한 관계망이 매우 취약하다), 집단 5는 사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비록 학원 선생님을 둘러싼 닫힌 구조가 약하다 하더라도 학원에 다니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사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일탈 행위를 줄이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이나 아동권의 불균등한 분배가 단순히 개인적인 속성(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심리적인 상태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해당 청소년을 둘러싼 관계망의 형태에 따라 어떻게 체계적으로 달라지는가를 검토한 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표 3] 한국 청소년 사회 관계망의 닫힌 정도와 주관적 행복감

종속변수	사회경제적관련변수			CLASS			사회경제적변수+CLASS		
주관적건강	N=3406 R2=0.0363			N=3848 R2=0.0293			N=3358 R2=0.0565		
	독립변수	계수	P값	독립변수	계수	P값	독립변수	계수	P값
주관적계층 (R. 상)	중	-0.331227	<b>0.000</b>	집단_2	-0.3168351	<b>0.0000</b>	중	-0.2796854	<b>0.000</b>
	하	-0.702989	<b>0.000</b>	집단_3	-0.1479313	<b>0.0330</b>	하	-0.5945517	<b>0.000</b>
부모직업여부 (R. 부모직)	부X모O	0.0297738	0.815	집단_4	0.2813936	<b>0.0000</b>	부X모O	0.0362735	0.777
	부모O	0.0316234	0.409	집단_5	-0.3098865	<b>0.0000</b>	부모O	0.0353278	0.356
	부모X	0.274602	0.199	집단_6	0.0573827	0.4230	부모X	0.3089629	0.145
부학력 (R. 중졸이하)	전문대졸이하	0.209639	<b>0.001</b>	집단_7	-0.0371857	0.5420	전문대졸이하	0.2209098	<b>0.000</b>
	대학원졸이하	0.2434002	<b>0.000</b>	_cons	3.981265	0.0000	대학원졸이하	0.2224408	<b>0.001</b>
	_cons	3.973219	0.000				집단_2	-0.3129417	<b>0.000</b>
							집단_3	-0.1420006	<b>0.061</b>
							집단_4	0.1862855	<b>0.023</b>
							집단_5	-0.2732768	<b>0.000</b>
							집단_6	-0.0120904	0.875
							집단_7	-0.0605504	0.361
							_cons	4.043232	0.000
<b>학교생활만족</b>	N=3406 R2=0.0374			N=3848 R2=0.0919			N=3358 R2=0.1099		
주관적계층 (R. 상)	중	-0.3778298	<b>0.000</b>	집단_2	-0.7242507	<b>0.0000</b>	중	-0.2734414	<b>0.000</b>
	하	-0.7912721	<b>0.000</b>	집단_3	-0.2758912	<b>0.0000</b>	하	-0.5726492	<b>0.000</b>
부모직업여부 (R. 부모직)	부X모O	0.1456102	0.297	집단_4	0.3724913	<b>0.0000</b>	부X모O	0.1375893	0.314
	부모O	-0.0107599	0.798	집단_5	-0.7041402	<b>0.0000</b>	부모O	-0.0107404	0.792
	부모X	-0.002959	0.990	집단_6	-0.1659878	<b>0.0290</b>	부모X	0.0429595	0.849
부학력 (R. 중졸이하)	전문대졸이하	0.0751124	0.273	집단_7	-0.0525725	0.4150	전문대졸이하	0.1020606	0.126
	대학원졸이하	0.1909266	<b>0.007</b>	_cons	3.637002	0.0000	대학원졸이하	0.1648204	<b>0.018</b>
	_cons	3.624377	0.0000				집단_2	-0.7074992	<b>0.000</b>
							집단_3	-0.2686272	<b>0.001</b>
							집단_4	0.2175452	<b>0.013</b>
							집단_5	-0.7327712	<b>0.000</b>
							집단_6	-0.2427908	<b>0.003</b>
							집단_7	-0.1150587	0.103
							_cons	3.832578	0.000

삶의만족	N=3406 R2=0.0616				N=3848 R2=0.0782				N=3358 R2=0.1192			
	주관적계층 (R. 상)	중	-0.5153966	<b>0.000</b>	집단_2	-0.6401113	<b>0.0000</b>	중	-0.4237277	<b>0.000</b>		
	하	-1.102264	<b>0.000</b>	집단_3	-0.2593076	<b>0.0010</b>	하	-0.9296048	<b>0.000</b>			
부모직업여부 (R. 부모직)	부X모O	0.2509665	0.073	집단_4	0.4117407	<b>0.0000</b>	부X모O	0.2432651	<b>0.077</b>			
	부모O	-0.0094916	0.821	집단_5	-0.7014341	<b>0.0000</b>	부모O	-0.0028219	0.945			
	부모X	-0.0327258	0.889	집단_6	-0.09069	0.2440	부모X	0.0061945	0.978			
부학력 (R. 중졸이하)	전문대졸이하	0.0861682	0.209	집단_7	-0.136838	<b>0.0390</b>	전문대졸이하	0.116377	<b>0.083</b>			
	대학원졸이하	0.136569	<b>0.054</b>	_cons	3.496487	0.0000	대학원졸이하	0.1264586	<b>0.071</b>			
	_cons	3.63644	0.000				집단_2	-0.6015093	<b>0.000</b>			
							집단_3	-0.2565214	<b>0.002</b>			
							집단_4	0.2295782	<b>0.009</b>			
							집단_5	-0.7251949	<b>0.000</b>			
							집단_6	-0.2191013	<b>0.008</b>			
							집단_7	-0.2239352	<b>0.002</b>			
							_cons	3.841596	0.000			
소속감	N=3400 R2=0.0128				N=3840 R2=0.065				N=3352 R2=0.0720			
	주관적계층 (R. 상)	중	-0.1087991	<b>0.038</b>	집단_2	-0.5548974	<b>0.0000</b>	중	-0.0283101	0.584		
	하	-0.3592607	<b>0.000</b>	집단_3	-0.1827976	<b>0.0130</b>	하	-0.2014814	<b>0.010</b>			
부모직업여부 (R. 부모직)	부X모O	-0.0213858	0.878	집단_4	0.247239	<b>0.0020</b>	부X모O	-0.0233985	0.864			
	부모O	-0.0150162	0.720	집단_5	-0.6907017	<b>0.0000</b>	부모O	-0.0077038	0.851			
	부모X	0.0794983	0.739	집단_6	0.0183985	0.8080	부모X	0.116313	0.616			
부학력 (R. 중졸이하)	전문대졸이하	0.1709803	<b>0.012</b>	집단_7	-0.1636279	<b>0.0110</b>	전문대졸이하	0.2074848	<b>0.002</b>			
	대학원졸이하	0.2593167	<b>0.000</b>	_cons	3.584507	0.0000	대학원졸이하	0.2665565	<b>0.000</b>			
	_cons	3.288026	0.000				집단_2	-0.587963	<b>0.000</b>			
							집단_3	-0.2052861	<b>0.011</b>			
							집단_4	0.1392134	0.114			
							집단_5	-0.736428	<b>0.000</b>			
							집단_6	-0.0848538	0.301			
							집단_7	-0.2379121	<b>0.001</b>			
							_cons	3.484428	0.000			
어울림	N=3406 R2=0.0382				N=3848 R2=0.076				N=3358 R2=0.1013			
	주관적계층 (R. 상)	중	-0.3048635	<b>0.000</b>	집단_2	-0.5275168	<b>0.0000</b>	중	-0.2134157	<b>0.000</b>		
	하	-0.6912332	<b>0.000</b>	집단_3	-0.3653846	<b>0.0000</b>	하	-0.5301046	<b>0.000</b>			
부모직업여부 (R. 부모직)	부X모O	0.1072536	0.371	집단_4	0.3037975	<b>0.0000</b>	부X모O	0.1078083	0.359			
	부모O	0.0019039	0.958	집단_5	-0.6095406	<b>0.0000</b>	부모O	0.0071258	0.839			

	부모X	-0.1554489	0.439	집단_6	-0.0048309	0.9410	부모X	-0.1323294	0.497
부학력 (R. 중졸이하)	전문대졸이하	0.1663349	<b>0.005</b>	집단_7	-0.2028509	<b>0.0000</b>	전문대졸이하	0.1906911	<b>0.001</b>
	대학원졸이하	0.206801	0.001	_cons	4	0.0000	대학원졸이하	0.2019782	<b>0.001</b>
	_cons	3.867974	0.000				집단_2	-0.5154605	<b>0.000</b>
							집단_3	-0.3546534	<b>0.000</b>
							집단_4	0.1971471	<b>0.009</b>
							집단_5	-0.6515863	<b>0.000</b>
							집단_6	-0.0958925	0.173
							집단_7	-0.2592807	<b>0.000</b>
							_cons	4.065367	0.000
외로움									
	N=3406 R2=0.0163			N=3848 R2=0.0248			N=3358 R2=0.0386		
주관적계층 (R. 상)	중	0.2788266	<b>0.000</b>	집단_2	0.3805385	<b>0.0000</b>	중	0.2152066	<b>0.000</b>
	하	0.6030228	<b>0.000</b>	집단_3	0.1383685	<b>0.0940</b>	하	0.4612924	<b>0.000</b>
부모직업여부 (R. 부모X)	부X모O	0.0395876	0.794	집단_4	-0.3215471	<b>0.0000</b>	부X모O	0.0293004	0.847
	부모O	0.0320984	0.481	집단_5	0.1239397	0.1170	부모O	0.0411487	0.365
	부모X	0.2230568	0.380	집단_6	-0.1188779	0.1630	부모X	0.1747871	0.488
부학력 (R. 중졸이하)	전문대졸이하	-0.0636233	0.392	집단_7	-0.0217193	0.7640	전문대졸이하	-0.0838034	0.259
	대학원졸이하	0.0074353	0.923	_cons	2.444965	0.0000	대학원졸이하	0.0426055	0.582
	_cons	2.229914	0.000				집단_2	0.4428415	<b>0.000</b>
							집단_3	0.2250902	<b>0.012</b>
							집단_4	-0.2151342	<b>0.027</b>
							집단_5	0.1997667	<b>0.020</b>
							집단_6	0.0112348	0.902
							집단_7	0.0613265	0.435
							_cons	2.146161	0.000
성적									
	N=3918 R2=0.0405			N=3264 R2=0.0713			N=2879 R2=0.0894		
주관적계층 (R. 상)	중	3.706387	<b>0.004</b>	집단_2	4.260362	<b>0.0130</b>	중	2.140609	<b>0.097</b>
	하	8.461799	<b>0.000</b>	집단_3	2.495347	0.1870	하	4.068946	<b>0.038</b>
부모직업여부 (R. 부모X)	부X모O	6.399722	<b>0.073</b>	집단_4	-18.28662	<b>0.0000</b>	부X모O	4.83331	0.169
	부모O	2.282441	<b>0.028</b>	집단_5	-4.388275	<b>0.0150</b>	부모O	2.237286	<b>0.028</b>
	부모X	-7.068503	0.231	집단_6	-8.883975	<b>0.0000</b>	부모X	-9.569659	<b>0.097</b>
부학력 (R. 중졸이하)	전문대졸이하	-2.79671	0.102	집단_7	-10.62144	<b>0.0000</b>	전문대졸이하	-2.11346	0.209
	대학원졸이하	-10.85044	<b>0.000</b>	_cons	47.47775	0.0000	대학원졸이하	-7.838261	<b>0.000</b>
	_cons	42.54091	0.000				집단_2	4.033816	<b>0.030</b>
							집단_3	2.559188	0.213

							집단_4	-15.36383	<b>0.000</b>
							집단_5	-2.695239	0.167
							집단_6	-7.131119	<b>0.001</b>
							집단_7	-8.86834	<b>0.000</b>
							_cons	46.44595	0.000
<b>가출충동</b>									
	N=3918 R2=0.0099			N=3849 R2=0.0107			N=3358 R2=0.0216		
주관적계층 (R. 성)	중	0.2374806	<b>0.015</b>	집단_2	0.4511523	<b>0.0000</b>	중	0.1855082	<b>0.063</b>
	하	0.8706401	<b>0.000</b>	집단_3	-0.0989799	0.4790	하	0.7728333	<b>0.000</b>
부모직업여부 (R. 부모직)	부X모O	-0.0733924	0.773	집단_4	-0.2141622	0.1730	부X모O	-0.0521059	0.841
	부모O	0.0144597	0.850	집단_5	0.4993939	<b>0.0000</b>	부모O	0.0093104	0.904
	부모X	-0.4671786	0.294	집단_6	0.0835867	0.5570	부모X	-0.5122112	0.253
부학력 (R. 중졸이하)	전문대졸이하	-0.1437615	0.247	집단_7	0.0310604	0.7980	전문대졸이하	-0.1519974	0.229
	대학원졸이하	0.0617522	0.629	_cons	-0.5559461	0.0000	대학원졸이하	0.0849112	0.518
	_cons	-0.6250558	0.000				집단_2	0.5137991	<b>0.000</b>
							집단_3	0.0096855	0.951
							집단_4	-0.1076999	0.532
							집단_5	0.6352197	<b>0.000</b>
							집단_6	0.1839864	0.242
							집단_7	0.1086993	0.426
							_cons	-0.8116443	0.000
<b>자살충동</b>									
	N=3407 R2=0.0108			N=3849 R2=0.0119			N=3358 R2=0.0248		
주관적계층 (R. 성)	중	0.226582	<b>0.030</b>	집단_2	0.6062702	<b>0.0000</b>	중	0.181876	<b>0.089</b>
	하	0.86697	<b>0.000</b>	집단_3	-0.1436855	0.3480	하	0.779807	<b>0.000</b>
부모직업여부 (R. 부모직)	부X모O	0.0440335	0.866	집단_4	0.005681	0.9730	부X모O	0.0788747	0.769
	부모O	-0.007564	0.925	집단_5	0.4691533	<b>0.0010</b>	부모O	-0.0137162	0.867
	부모X	-1.045353	<b>0.061</b>	집단_6	0.2524632	<b>0.0950</b>	부모X	-1.097958	<b>0.051</b>
부학력 (R. 중졸이하)	전문대졸이하	-0.1629498	0.209	집단_7	0.0754238	0.5650	전문대졸이하	-0.197805	0.136
	대학원졸이하	0.0364588	0.785	_cons	-0.989413	0.0000	대학원졸이하	0.0398528	0.772
	_cons	-0.9629261	0.000				집단_2	0.6806562	<b>0.000</b>
							집단_3	-0.1350198	0.439
							집단_4	0.0934042	0.613
							집단_5	0.5844853	<b>0.000</b>
							집단_6	0.4068608	<b>0.015</b>
							집단_7	0.1689361	0.255
							_cons	-1.205505	0.000

흡연	N=3404 R2=0.0177			N=3846 R2=0.0157			N=3355 R2=0.0286		
	주관적계층 (R. 상)	중	0.0103647	0.936	집단_2	0.3695789	<b>0.0130</b>	중	-0.0599527
하		0.7096101	<b>0.000</b>	집단_3	-0.0038893	0.9820	하	0.5136649	<b>0.003</b>
부모직업여부 (R. 부모모)	부X모O	0.1360078	0.644	집단_4	-0.6432871	<b>0.0030</b>	부X모O	0.1647946	0.579
	부모O	-0.1287395	0.193	집단_5	-0.0992959	0.5470	부모O	-0.1171397	0.242
	부모X	0.0834124	0.865	집단_6	-0.4154618	<b>0.0280</b>	부모X	-0.009771	0.984
부학력 (R. 중졸이하)	전문대졸이하	-0.3321905	<b>0.021</b>	집단_7	-0.400195	<b>0.0100</b>	전문대졸이하	-0.3330642	<b>0.023</b>
	대학원졸이하	-0.5847904	0.000	_cons	-1.43972	0.0000	대학원졸이하	-0.4905877	<b>0.002</b>
	_cons	-1.209923	0.000				집단_2	0.546326	<b>0.001</b>
							집단_3	0.0973476	0.621
							집단_4	-0.3349437	0.159
							집단_5	0.0482841	0.800
							집단_6	-0.1246619	0.553
							집단_7	-0.1219512	0.494
							_cons	-1.245191	0.000
음주									
주관적계층 (R. 상)	N=3404 R2=0.0177			N=3847 R2=0.0080			N=3356 R2=0.0162		
	중	0.2207121	<b>0.022</b>	집단_2	0.3611836	<b>0.0030</b>	중	0.1741228	<b>0.076</b>
하	0.7738407	<b>0.000</b>	집단_3	0.0943428	0.4860	하	0.6754331	<b>0.000</b>	
부모직업여부 (R. 부모모)	부X모O	0.5655759	<b>0.027</b>	집단_4	-0.3868858	<b>0.0130</b>	부X모O	0.582863	<b>0.025</b>
	부모O	-0.0248265	0.743	집단_5	0.1767739	0.1720	부모O	-0.0080226	0.917
	부모X	-0.55091	0.220	집단_6	-0.0819171	0.5600	부모X	-0.5683994	0.207
부학력 (R. 중졸이하)	전문대졸이하	-0.0473538	0.700	집단_7	-0.1107701	0.3530	전문대졸이하	-0.0514513	0.680
	대학원졸이하	-0.1833547	0.149	_cons	-0.3396774	0.0010	대학원졸이하	-0.1369408	0.292
	_cons	-0.4350455	0.003				집단_2	0.4001761	<b>0.004</b>
							집단_3	0.2555535	<b>0.092</b>
							집단_4	-0.19442	0.250
							집단_5	0.2777051	<b>0.055</b>
							집단_6	0.1335947	0.386
							집단_7	0.0418916	0.754
							_cons	-0.5674151	0.001



## 참고문헌

- 강경미. 1994. “소아기 우울증: 소아기 우울증의 개관과 발달학적 측면”. *소아청소년정신의학*. 5(1), 3-11.
- 금명자. 2003. “상담사례를 통해 본 청소년의 변화”.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48*.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경식. 2006. “교사기대 형성과 변화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중등교육연구*, 54(2), 95-121.
- 김수리, 이재창. 2007.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93-407.
- 김현숙. 1998.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09.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Manuscript*.
- 임형진. 1998. “교사의 기대형성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교육학회. 초등교육연구*, 2(0), 1-16.
- 이선애. 2009. “가족자원 및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14(1), 5-24.
- 한상철, 이수연. 2003. “가출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행동에 대한 상담학적 개입 전략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1), 152-165.
- Astone, N. M. & McLanahan, S. S. 1991. “Family structure, parental practices and high school comple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3), 309-32.
- Blue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9-50.
- Coleman, Jame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Kanddel, D. B., Raveis, V. H., Davies, M. 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239-299.
- McLanahan, S. 1985. “Family structure and the reproduction of poverty”. *AJS*, 90(4), 873-901.
- McLanahan, S., Bumpass, L., 1988. “Intergenerational Consequences of Family Disruption”. *AJS*, 94(1), 130-152.
- Langlie., J. K. 1977. “Social networks health belief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8, 244-260.

Lee, M. 2003. "Korean adolescents' "Examination Hell" and their use of free time".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99, 9-22.

Resnick, M. D., Harris, K. M., Shew, M. 1997. "Protecting adolescent from harm".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8(10), 823-832.

Rosenthal, R. & Jacobson, L. 1968. "*Pygmalion in the Classroom: Teacher Expectation and Pupils' Intellectual Development*". Holt: Reinhart and Winston.

Teachman, J. D., Paasch, K. & Carver, K. 1997. "*Social Capital and the Generation of Human Capital*". *Social Forces*, 75(4), 1343-1359.



**행복의 조건:  
청소년의 생활시간  
패턴 분석을 통한 시사점**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

## 발 표

### 행복의 조건: 청소년의 생활시간 패턴 분석을 통한 시사점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OECD 회원국(40개국 대상 조사) 만15세 학생을 대상으로 2006년 실시된 국제 학업성취도 조사(PISA)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은 읽기 능력 1위(2003년 3위), 수학 능력 1위(2003년 3위), 과학능력 7위(2003년 4위)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학습동기, 흥미 등 정의적 태도는 매우 취약하고 학교 소속감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03년 PISA에 따르면, 수학에 대한 흥미는 31위, 동기는 38위를 차지하였다. 2000년 PISA에서 나타난 학교 소속감의 경우도 가장 낮아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도 잘하고 학교 출석률도 높지만 학교를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좋은 학업성취도의 이면에는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OECD(2006)에 따르면,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25세 미만 응답자 중에서 만족한다(1-10점 중 7점 이상)는 응답비율은 44.9%에 불과하였다. 한국과 함께 학업성취도 최상위권을 점하고 있는 핀란드의 동일한 응답비율은 81.6%에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과 유사한 입시 경쟁을 보여주는 일본도 50.3%로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부록표 1> 참조).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생활시간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를 통해 행복의 조건을 탐색해 보는데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패턴이 높은 삶에 대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I. 분석 내용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생활시간을 국제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두 가지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sup>1)</sup>. 첫 번째는 생활일지(time-diary) 방식으로 각 국가에서 수행 중인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와 OECD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학업성취도조사(PISA)이다.

생활시간조사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개인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조사로 개인들의 생활양식(life style)이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문숙재, 1998; 손애리, 2000).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는 우선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의 산출에 있어서 누락되었던 무보수 노동의 측정과 평가를 수행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정책이나 경기변화가 개인들의 시간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개인들이 학습과 훈련 활동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 삶의 질과 관련해 개인들이 일과 여가를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는지 등과 같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쟁점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Joyce and Stewart, 2004).

우리나라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와 미국 ATUS(American Time Use Survey)의 경우 원자료 사용이 가능하여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반면, 일본의 경우 사회생활기본조사(社会生活基本調査) 일환으로 실시되는 생활시간조사의 원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분석표를 활용했으며 유럽 국가들의 경우 EUROSTAT에서 수행하고 있는 HETUS(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에서 사용승인을 얻은 후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 교차표 수준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해 HETUS를 운영 중인 스웨덴 통계청으로부터 자료 이용 승인을 얻었다.

---

1) 이 글은 김기현 외(2009)가 수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표 1> 각 국가별 생활시간조사 현황

나라명	조사년도	대상	표본수	비고	자료이용
한국	2004	10세 이상	12,750가구	1999년시작 5년주기	원자료 이용
미국	2004	15세 이상	26,328가구	2003년부터 매년실시	원자료 이용
일본	2001	10세 이상	99천가구 25만명	1996년시작 5년주기	공표 이용
영국	2000	8세 이상	10,336명	EUROSTAT	웹 활용 결과 제공
스웨덴	2000-2001	15세 이상	3,998명	EUROSTAT	웹 활용 결과 제공
독일	2001-2002	10세 이상	12,655명	EUROSTAT	웹 활용 결과 제공
핀란드	1999-2000	10세 이상	5,728명	EUROSTAT	웹 활용 결과 제공

출처: BLS(2005), EUROSTAT(2005), 總務省統計局(2002)

비교대상 국가들로는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으로 선정하였으며 제공되는 자료 수준에 따라 분석대상 국가들을 취사선택하였다.

다음으로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OECD의 PISA이다. 이 자료는 다단계 층화표집(多段階 層化標集)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표집대상은 2003년에 15세가 된 학생이다. 이 자료는 41개 국가에서 표집한 276,195개 사례를 포함한다. 그러나 OECD에 가입하지 않은 11개 국가의 51,890개의 사례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최종표본은 224,305개다.

PISA 자료는 학생들에게 “지난주에 수학을 공부하는 데에 몇 시간을 썼느냐”고 질문하였고, 응답을 1)정규수업시간, 2) 교사가 부여한 숙제해결 시간, 3) (학교가 실시하는) 보충수업시간, 4) (학교가 실시하는) 심화학습시간, 5) 가정교사와 함께 하는 사교육시간, 6) 기타 과외수업시간, 7) 기타(수학 모임 등) 등으로 구분하였다(<부록표 2> 참조). 이 글에서는 학습시간을 정규학습시간(1), 자율학습시간(2와 7), 보충수업시간(3), 심화학습시간(4), 사교육시간(5와 6)으로 나누었다.

이 글은 생활시간조사와 PISA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생활시간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해 시도해 보고자 한다. PISA 자료는 주로 학습시간에 관한 분석에서 생활시간조사와 더불어 다루어졌다.

## II. 청소년의 생활시간 분석 결과

우리는 보통 청소년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이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TV 시청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청소년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한정된 하루 24시간 중 많은 시간을 수동적이고 고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인 TV 시청에 할애함으로써 인지적 발달이나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일 공부하는 시간이 과도하게 많아 수면시간이 부족하거나 정신적으로 이완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된다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반대로 학습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을 경우 해당 연령대와 교육단계에서 요구되는 지적 수준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거나 또래들보다 뒤쳐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간의 사용방식은 청소년들의 성장과 함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와 일본의 생활시간조사, 그리고 유럽의 HETUS, 미국의 ATUS 등 각 국가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시간, 여가시간, 참여 및 자원봉사활동 시간 등 중요한 영역별로 생활시간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유럽의 HETUS는 15세 이상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고 미국의 ATUS는 15세 이상부터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10-14세 청소년에 대한 비교는 한국과 일본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으며 15-24세의 경우 해당 연령대 전체의 결과와 더불어 학생 및 취업자의 결과도 동시에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분석은 평일에 국한하였으며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PISA 자료는 학습시간을 다루는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주간 학습시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 1. 학습시간 국제비교

이 절에서는 학습시간에 대해서 외국과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연령집단별로 학습시간을 살펴보면, 15-24세의 경우 한국은 4시간 55분으로 가장 길었다.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긴 학습시간을 보여준 미국보다 2시간 5분이나 길었으며 가장 짧은 영국보다 4시간 5분이나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습시간이 급격히 떨어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나 독일(18분), 스웨덴(27분), 핀란드(19분)의 경우 25-44세의 학습시간은 한국(16분)보다 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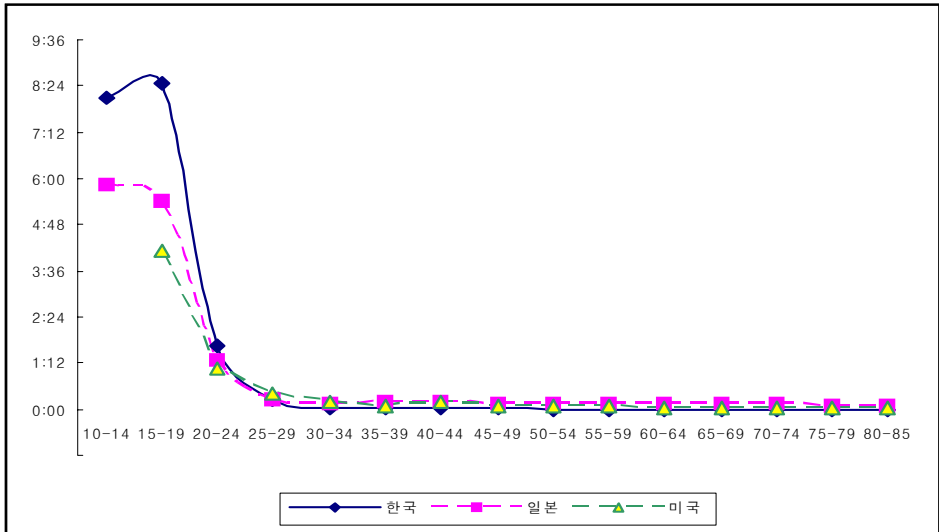
<표 2> 각국의 연령집단별 학습시간 비교

(단위: 시간, 분)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15-24	4:55	2:50	0:50	1:23	1:33	1:48
25-44	0:16	0:13	0:10	0:18	0:27	0:19
45-64	0:03	0:05	0:05	0:05	0:04	0:04
65-85	0:00	0:01	0:02	0:03	0:05	0:01
전체	1:28	0:25	0:10	0:16	0:20	0:18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04), BLS, ATUS(2004), EUROSTAT, HETUS(2005)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04), BLS, ATUS(2004), 總務省統計局, 社會生活基本調査(2001)

[그림 1] 한·미·일 연령집단별 학습시간 비교

[그림 1]은 연령집단을 5세 단위로 세분해서 제공하고 있는 일본 자료에 맞추어 한국과 미국 결과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10-14세보다 15-19세의 학습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15-19세에 학습시간이 10-14세보다 낮아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학습시간은 20세 이후 미·일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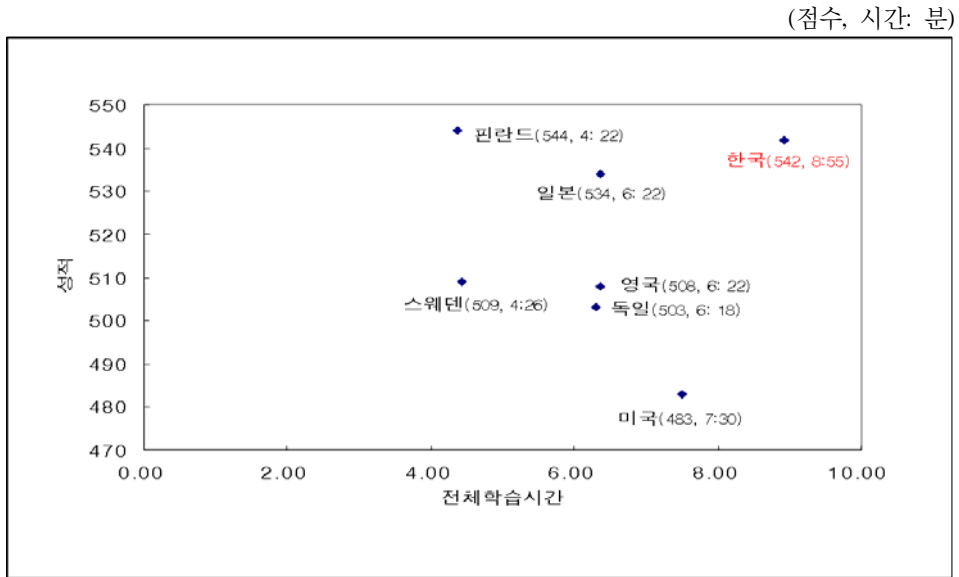
<표 3> 각국의 15-24세 학생, 취업자 학습시간 비교

(단위: 시간, 분)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학생	7:50	5:21	5:04	3:49	5:02	5:55	6:06
취업자	0:02	0:14	0:17	0:10	0:53	0:15	0:31
전체	4:55	3:15	2:51	0:56	1:31	1:40	2:06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04), BLS, ATUS(2004), EUROSTAT, HETUS(2005), 總務省統計局, 社會生活基本調査(2001)

<표 3>은 15-24세의 경우 학생과 취업자의 학습시간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학생의 학습시간은 한국(7:50)이 가장 길고 가장 차이가 적은 국가는 핀란드(6:06)였다. 취업자의 경우 한국의 학습시간은 2분에 불과해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적은 시간을 보여준 영국(10분)보다 8분이나 적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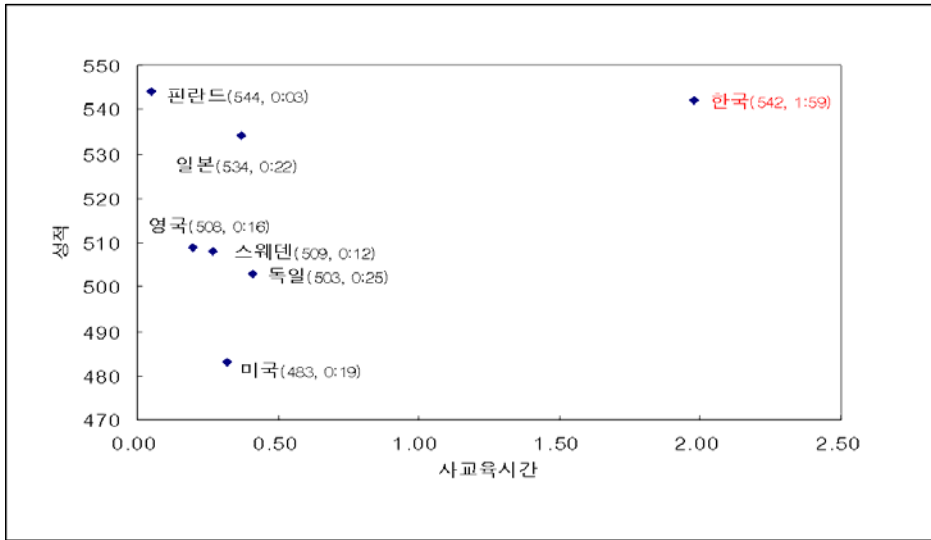
자료: OECD PISA(2003)

[그림 2] 15세 일주일간 수학 관련 전체 학습시간과 수학성적

이어서 PISA를 통해 15세의 일주일간 수학 관련 전체 학습시간과 수학성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PISA 자료는 생활시간조사에 비해서 학습시간을 세부적인 영역별로 분해해 비교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국제비교가 가능한 학업성취도 결과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시간패턴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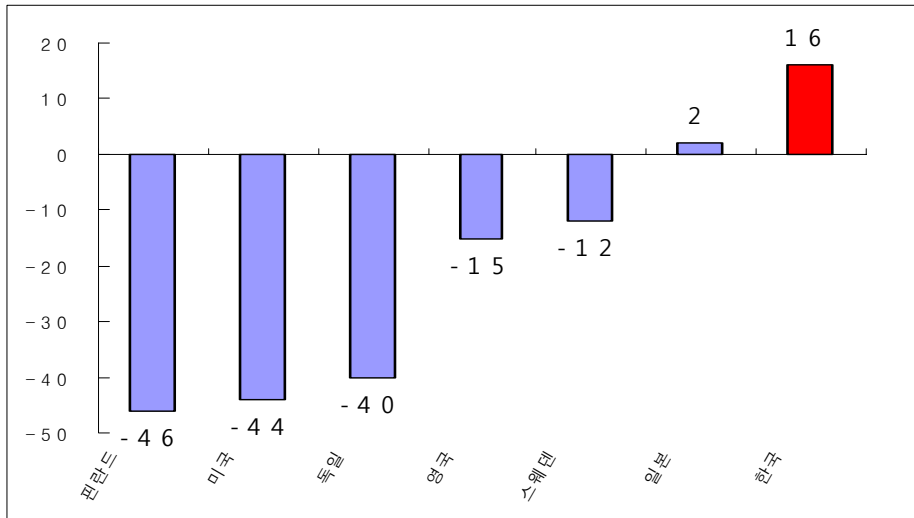
[그림 2]는 비교대상 국가의 일주일간 수학 관련 전체 학습시간과 수학성적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유사한 수학성적을 보여주는 핀란드(수학점수 544점, 총 학습시간 4시간 22분)에 비해 한국의 학습시간(542점, 8시간 55분)이 두 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나 학습투자의 비효율성이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점수, 시간: 분)



자료: OECD PISA(2003)

[그림 3] 15세 일주일간 수학 관련 사교육시간과 수학성적



주: 긴 학습자는 사교육시간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긴 경우, 짧은 학습자는 1표준편차 짧은 경우

자료: OECD PISA(2003)

[그림 4] 사교육시간이 긴 학습자와 짧은 학습자간 수학 점수차

특히 전체학습시간 중 사교육시간은 일주일간 평균 1시간 59분으로 핀란드(3분), 일본(22분), 미국(19분), 영국(16분) 등 선진국보다 매우 길었다.

[그림 4]는 사교육시간이 긴 학습자와 짧은 학습자간의 수학 점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교대상국가들 중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이 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사교육시간이 길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사교육시간이 길어 학업이 뒤 떨어지는 학생들이 보강 차원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7개 국가 외에 OECD 23개 국가 모두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과 일본처럼 사교육이 긴 학습자의 수학 점수가 높게 나온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김기현 외, 2009)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시간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최장 학습시간의 원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으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사교육 시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 성적이나 낮은 성적을 보여주는 학생들 모두가 학업 격차를 우려해 사교육에 매달리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른 나라처럼 학교수업만으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다면 사교육은 필요악이 아니라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 2. 수면 및 여가시간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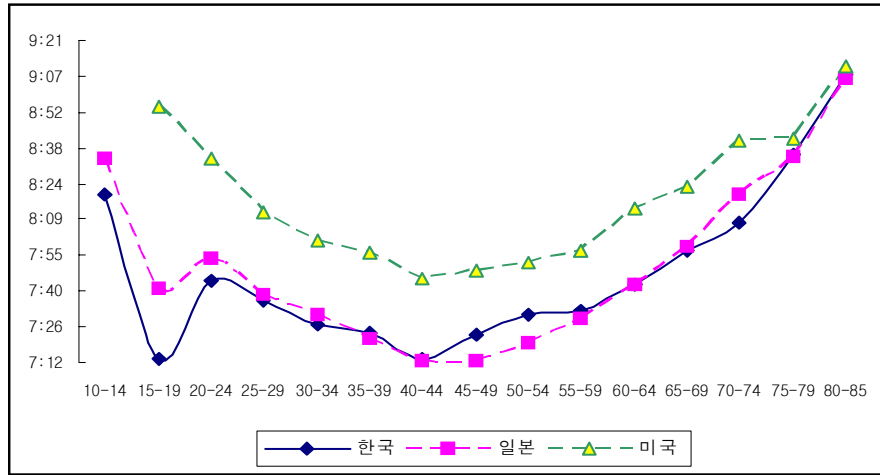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청소년의 수면 및 여가시간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수면시간을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15-24세 수면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짧았다. 독일(8:06)을 제외하고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1시간가량 수면시간이 짧았다.

<표 4> 각국의 연령집단별 수면시간 비교

(단위: 시간, 분)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15-24	7:30	8:47	8:36	8:06	8:26	8:31
25-44	7:26	7:57	8:08	7:41	7:43	8:03
45-64	7:31	7:57	7:59	7:58	7:38	8:00
65-85	8:15	8:42	8:25	8:24	8:16	8:50
전체	7:37	8:11	8:09	7:56	7:48	8:10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04), BLS, ATUS(2004), EUROSTAT, HETUS(2005)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04), BLS, ATUS(2004), 總務省統計局, 社會生活基本調査(2001)

[그림 5] 한·미·일 수면시간 비교

미국수면재단(NSF)에 따르면, 적정 수면시간은 개인마다 다르나 성인 7-8시간, 청소년 9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권유하고 있다. 아주대 의대연구팀(2009)은 하루 5시간 자는 사람들의 비만률이 7시간 자는 사람보다 30%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존스홉킨스대학교 남학생 1천53명을 3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수면이 부족할 경우 우울증 발생률이 2배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면시간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지적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15-24세의 수면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정수준에 이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5세 단위로 연령집단을 세분하여 일본과 한국, 미국을 비교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이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15-19세에 수면시간이 감소한 후 20-24세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면시간이 40세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수면시간의 경우 15-19세에 매우 낮아져 40대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과 일본과는 달리 최저 수면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매우 치열한 한국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표 5> 각국의 연령집단별 컴퓨터 및 비디오게임 이용시간

(단위: 시간, 분)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15-24	0:46	0:25	0:06	0:13	0:09	0:10
25-44	0:15	0:08	0:04	0:04	0:03	0:03
45-64	0:05	0:06	0:01	0:02	0:01	0:01
65-85	0:01	0:13	0:01	0:02	0:00	0:01
전체	0:20	0:10	0:03	0:04	0:02	0:02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04), BLS, ATUS(2004), EUROSTAT, HETUS(2005)

<표 6> 각국의 연령집단별 운동시간 비교

(단위: 시간, 분)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15-24	0:13	0:37	0:13	0:24	0:26	0:22
25-44	0:17	0:20	0:11	0:19	0:22	0:22
45-64	0:30	0:16	0:13	0:24	0:24	0:31
65-85	0:38	0:09	0:13	0:32	0:41	0:40
전체	0:21	0:18	0:12	0:21	0:15	0:27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04), BLS, ATUS(2004), EUROSTAT, HETUS(2005)

<표 7> 각국의 연령집단별 참여 및 자원 봉사활동 시간 비교

(단위: 시간, 분)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15-24	0:01	0:08	0:05	0:11	0:05	0:07
25-44	0:02	0:06	0:06	0:12	0:08	0:11
45-64	0:04	0:09	0:17	0:21	0:14	0:19
65-85	0:04	0:12	0:20	0:14	0:24	0:23
전체	0:02	0:09	0:12	0:17	0:12	0:16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04), BLS, ATUS(2004), EUROSTAT, HETUS(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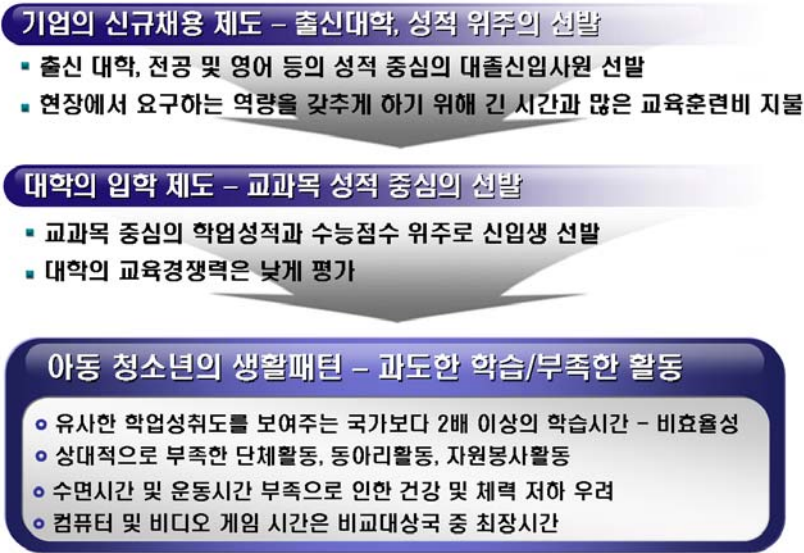
<표 5>는 각 국의 연령집단별 컴퓨터 및 비디오게임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15-24세 컴퓨터 및 비디오게임시간은 46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다. <표 6>는 각 국의 연령집단별 운동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의 15-24세 운동시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은 15-24세 참여 및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은 평일 24시간 중 1분으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짧았다. 이 같은 특징은 모든 연령대에서 확인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참여 및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전반적으로 짧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Ⅲ.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패턴은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등교육 이수율도 세계 4위로 최상위권이나 이는 청소년 시기에 외국 선진국보다도 매우 긴 학습시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학습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본분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이 시기에 꼭 필요하고 경험해야 할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는 힘들다. 동시에 PISA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였듯이 유사한 학업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는 핀란드, 일본 등과 비교해 볼 때 2배 이상의 긴 학습시간은 투자 대비 효율에 있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 및 기업의 선발방식은 청소년의 생활패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온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변화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신규 채용이 학벌 위주로 출신대학을 중시하고 성적이나 점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출신대학을 고려하는 것을 차별적 채용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8개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인사지원의 차별관행에 대한 시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인사지원서에서 차별관행으로 지적된 내용 중 많은 부분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진 삭제조치를 취했으나 출신학교명 기재의 경우 38개 기업 중 단 4개 기업만이 이를

입사지원서에서 삭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림 6] 대학 및 기업의 선발방식이 청소년의 생활패턴에 미치는 영향

대학 역시 입학사정관 등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과목 위주의 성적과 수능시험을 중심으로 대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와는 달리 선진국들은 대학의 건학 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직된 대학서열화는 입시경쟁의 과열로 이어지고 있으나 선진국 대부분은 단선적인 서열구조를 보여주고 있지 않고 소수의 특정 최상위 대학에 대한 입시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 선발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는 학업능력 외에 다양한 비학업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점이며 이러한 차이는 선진국의 초중등교육단계에서 교과 외 활동,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한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기업의 채용방식의 변화, 입학사정관 도입 등 대학 입학제도의 변화 등으로 교과목 위주의 성적 중심, 입시위주 교육에서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바뀔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및 동



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운동시간 등을 늘리고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선진화’라는 말이 참여정부 시기 국가비전 2030이라는 미래 전략을 제시할 때 중요하게 활용된 이후 현재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진정한 선진화는 경제적 지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선진화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왜곡된 청소년들의 생활패턴은 최고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이루어 냈지만 불행한 삶을 가져온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태중 외(2005). 진학을 둘러싼 고등학교와 대학의 연계현황과 발전 대안 탐색. 교육혁신위원회.
- 김기현, 김지연, 장근영, 김진화, 강영배(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연구 1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안선영, 장상수, 김미란, 최동선(2009), 아동청소년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김미숙, 강영혜, 박소영, 이희숙, 황여정. 2006.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정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화. 2004. “사교육 선호 경향 및 선호 요인 분석연구. 『교육학연구』, 42(2): 335-365.
- 문숙재.1998. [생활시간연구]. 학지사.
- 손애리. 2000. “시간연계, 김자미(1995). 미국대학의 입학사정준거 탐색과 우리나라 대학 입학 제도를 위한 구의 특성과 생활시간조사개발과정.” 『조사연구』, 1(1): 135-148.
- 이장영. 2004. 『여가』. 일신사.
- Bureau of Labor Statistics(BLS). 2005. America Time Use Survey-2004 Results.
- coleman, J. C.and Hendry, L. B.1999. The Nature of Adolescence. London: Routledge.
- HETUS. 2005. Comparable Time Use Statistics: National Tables from 10 European Countries.
- Jaffe, M. 1998. Adolescence. New York: John Wiley.
- Joyce, M. and Stewart, J. 2004. “What can we learn from time-use data?” Monthly Labor Review, 127(12): 3-6.
- Larson, M and Richards, M.1989.1989. “The Changing Life Space of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501-509.
- 總務省統計局. 2002. 『社会生活基本調査-1日の生活時間』.

## <부록>

<부록표 1> 삶에 대한 만족도(%)

	성별		연령			
	남	여	<25	25-50	51-64	65+
호주	83.2	80.5	82.7	82.2	81.8	79.0
오스트리아	0.0	0.0	0.0	0.0	0.0	0.0
벨기에	73.5	75.2	80.7	71.1	78.1	75.0
캐나다	78.3	78.8	84.8	75.2	80.6	79.9
체코	66.6	64.7	63.8	69.4	59.6	66.0
덴마크	85.1	81.0	84.6	85.2	82.1	77.6
<b>핀란드</b>	<b>82.7</b>	<b>85.7</b>	<b>81.6</b>	<b>85.5</b>	<b>84.3</b>	<b>81.6</b>
프랑스	66.9	64.0	72.2	65.5	60.5	65.4
<b>독일</b>	<b>72.3</b>	<b>74.0</b>	<b>77.8</b>	<b>70.9</b>	<b>71.3</b>	<b>78.6</b>
그리스	59.4	58.2	56.9	57.8	61.0	62.4
헝가리	38.0	38.6	49.3	37.9	32.4	38.7
아이슬란드	84.6	86.5	84.3	89.3	82.3	78.5
아일랜드	85.7	83.3	81.9	84.1	83.5	87.5
이탈리아	71.2	65.6	67.0	68.6	69.6	67.1
<b>일본</b>	<b>49.8</b>	<b>53.0</b>	<b>50.3</b>	<b>46.9</b>	<b>53.6</b>	<b>59.0</b>
<b>한국</b>	<b>45.4</b>	<b>44.6</b>	<b>44.9</b>	<b>44.0</b>	<b>45.2</b>	<b>56.8</b>
룩셈부르크	82.9	81.4	78.7	81.6	87.4	82.0
멕시코	79.2	80.6	81.9	77.8	78.9	87.3
네덜란드	89.7	88.8	95.6	89.7	88.3	85.1
뉴질랜드	0.0	0.0	0.0	0.0	0.0	0.0
노르웨이	0.0	0.0	0.0	0.0	0.0	0.0
폴란드	46.8	49.0	62.6	47.7	43.3	45.9
슬로바키아	65.6	64.6	70.0	68.7	59.9	61.5
포르투갈	44.7	44.2	52.6	43.7	42.9	40.4
스페인	64.8	66.2	65.3	66.4	67.0	61.4
<b>스웨덴</b>	<b>80.2</b>	<b>78.2</b>	<b>77.1</b>	<b>79.4</b>	<b>79.7</b>	<b>79.9</b>
스위스	33.4	42.3	41.2	34.3	38.2	39.4
터키	0.0	0.0	0.0	0.0	0.0	0.0
<b>영국</b>	<b>76.5</b>	<b>70.5</b>	<b>76.3</b>	<b>73.1</b>	<b>73.1</b>	<b>71.5</b>
<b>미국</b>	<b>77.4</b>	<b>76.0</b>	<b>78.3</b>	<b>72.0</b>	<b>80.5</b>	<b>85.2</b>
<b>OECD-26</b>	<b>59.5</b>	<b>59.2</b>	<b>61.4</b>	<b>58.9</b>	<b>58.8</b>	<b>59.8</b>

주: 최저 1에서 최고 10까지 만족도 점수 중 7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  
 자료: OECD(2006). Society at a Glance

<부록표 2> PISA 수학 관련 학습시간 관련 문항

*The following question asks about the time you spend studying and doing Mathematics homework outside of your regular Mathematics classes.*

**Q33** On average, how much time do you spend each week on the following?

*When answering include time at the weekend too.*

- a) Homework or other study set by your Mathematics teacher ..... \_\_\_\_\_ hours per week
- b) <Remedial classes> in Mathematics at school ..... \_\_\_\_\_ hours per week
- c) <Enrichment classes> in Mathematics at school ..... \_\_\_\_\_ hours per week
- d) Work with a <Mathematics tutor> ..... \_\_\_\_\_ hours per week
- e) Attending <out-of-school> Mathematics classes ..... \_\_\_\_\_ hours per week
- f) Other Mathematics activities (e.g. <Mathematics competitions, Mathematics Club>) ..... \_\_\_\_\_ hours per week



## 토 론 문

---

- 제1발표 토론

백 혜 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 형 욱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 제2발표 토론

김 신 영 (한양사이버대학교)

- 제3발표 토론

이 경 립 (부스러기사랑나눔회)

#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토론문<sup>1)</sup>

백 혜 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토론에 앞서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 과연 이들은 행복한가? 그리고 이들의 행복은 다른 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과 비교하여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만약 다른 나라 어린이·청소년과 비교해서, 또는 비교를 떠나서, 우리나라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행복하다면, 또는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 연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연구자들이 본문에 서술하였듯이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어린 시절의 행복이 이후 성인기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토론자가 또 다른 이유를 한 가지 덧붙인다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을 측정한다는 것은 사회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생각하며 이들을 성인과는 또 다른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 어린이와 청소년이 완전한 인격체가 아닌 성인의 축소판 내지는 부속물쯤으로 여기던 시각에서 탈피하였음을 시사하며, 그 사회가 지닌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시각의 성숙정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먼저 매우 흥미 있는 읽을거리와, 더 나아가 감히 토론의 영광을 제공해 주신 연구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 토론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측정해야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을까? 연구자들은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따른다”고 하며,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평가”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행복지수 측정을 위해 개인의 행복감(주관적 행복) 뿐 아니라 객관적인 삶의 지수(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건강관련 행동)에 대한 측정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측정방법을 따르고 있다. 연구자들이 내린 행복에 대한 정의를 떠나서 생각해 보면, 행복지수 측정에 있어서 주관적 영역과 함께 객관적 영역을 측정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말도 안 되는 환상이나 세뇌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속이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관적 행복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환경에 대한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을 측정하는데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지표의 측정을 포함한 것은 매우 타당한 것이라 생각되며, 연구자들의 주관적 행복감과 객관적 환경에 대한 측정에 대해 토론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측정한 객관적 환경 내용(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건강관련 행동)이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을 좌우하는 지표라고 동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토론자는 발표문에 나와 있는 주요 변수들을 보면서, 이들 중 몇 가지에 대해서는 과연 행복지수를 측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sup>2)</sup>. 예를 들어, 연구자들은 보건과 안전 영역을 영아건강, 예방접종, 사고사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인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영·유아기 시절의 건강과 예방접종이 그들의 행복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보다는 아토피나 비염 같이 현재 이들에게 흔한 질병이나 정신질환, 당뇨, 소아암 등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협하는 기타 질병의 발병률과 증상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이들 행복 측정과 더 관련이 깊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토론자의 이러한 의문은 토론자가 연구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의 많은 부분이 축약된 간단한 발표문에만 의지한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

2) 물론 국제비교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에서 갖추고 있는 자료 중에서 지표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취해야 할 지표가 그리 많지 않을 수는 있다.

이러한 측정변수에 대한 의문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살피면서 더욱 커졌다. 청소년의 행복을 측정한 다섯 가지 객관적 지표 중 교육, 보건과 안전, 건강관련 행동에 대한 한국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위치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고, 물질적 행복과 가족 친구 관계는 중위권에 해당하였다. 이는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청소년에 비해 “행복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나타난 주관적 안녕감은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자신의 처지를 감사할 줄 모르는 철없는 불평 불만자들인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인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듯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행복은 서로 독립적인 것인가? 그도 아니라면 이 연구에서 사용한 객관적 지표는 주관적 행복감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인가? 그 어떤 것이 정답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만약 마지막 물음이 답일 수 있다면<sup>3)</sup>,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해진다. 그것은 지표의 개선이다. 지표의 개선은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 상황에서 지표 문항의 개선과 가중치의 부과<sup>4)</sup>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지표의 개선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는 앞서 언급한 보건과 안전 영역을 이외에 교육영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교육영역<sup>5)</sup>에 있어서 한국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위치가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연구결과는 어찌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육에서의 높은 점수를 위해 어린 나이부터 그 나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놀이”를 반납하고, 심지어는 건강과 성장에 꼭 필요한 “잠자기”<sup>6)</sup>도 반납한 채 하루 종일 “교육”에 시달려야 한다. 우리나라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과도한 학습량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는 인권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열악한 교육적 상황은 세계가 경쟁하고 있다는 명목 아래

3) 변명하자면 이는 토론자가 토론거리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입장이기도 하다.

4) 연구진들은 가중치는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지만 선행연구의 예를 들어 질문의 상대적 중요성이 크지 않아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기술하였다.

5) 교육영역은 PISA의 읽기, 수학, 과학 영역의 시험점수로 측정되었다.

6) 한 조사(연합뉴스, 2009.1.8. 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다른 나라 초등학생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부모의 학업 만족도가 낮을수록 어린이들이 잠을 적게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경쟁과 그 속에서의 승리가 하나의 덕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경쟁에서 낙오(?)된 이들은 패자부활전도 없이 사회의 낙오자로 낙인찍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교육영역에서의 높은 점수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을 대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영역에서 측정되어야 할 것은 학업성적 뿐 아니라 학업에 할애하는 시간,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 및 만족도 등이 함께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중치 부과와 관련하여서도 한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어린이 및 청소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고 무엇 때문에 불행해질까? 우리나라의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아마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일 것이다. 특히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개인은 사회적 관계를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이에 따라 사회적 관계는 행복 구성의 핵심적인 영역이 될 수 있다(김명소, 김혜원, 임지영, 한영석, 유기철, 2003; 김의철, 박영신, 2004).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은 비단 성인에게만 국한 될 것이 아니라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더군다나 아동 및 청소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도 역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이들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실은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영역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 가족 친구 관계 영역을 좀 더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장황한 설명을 하였으나 연구 전반에 걸쳐 측정 변수를 살피면서, 그리고 결과에서 나타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괴리를 보면서 토론자가 느끼는 아쉬운 점은 결국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측정 영역과 각 영역에 포함된 변수의 도출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덧붙여졌으면 하는 아쉬움이라 할 것이다.

## 토론을 마치며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의 정도는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과 비교하여 어디쯤 와 있는가? 이는 세계 속에 사는 우리에게 매우 궁금한 물음이기도 한 동시에 중요한 물음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행복의 조건과 그 조건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국제비교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연구 결과에서 객관적인 환경과 주관적 행복간의 괴리가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복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객관적 환경에 대한 국가 간의 비교는 가능하겠으나 그것만으로는 행복을 예측하기는 불충분하다. 행복의 조건이 문화마다 다를 수 있고, 환경적 특수성에 따라 그 조건의 상대적 중요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론자는 행복 지수의 국제비교에 앞서 우리나라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고 각 조건의 상대적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나라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꼽는 행복의 조건과 상대적 중요성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측정 국제비교, 참으로 어렵고 먼 길이 아닐 수 없다.

##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06).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

김명소, 김혜원, 임지영, 한영석, 유기설, 2003; 김의철, 박영신(2004).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415-442.

연합뉴스(2009.1.8.). “한국 어린이 수면시간 다른 나라보다 짧아”

## 아동의 행복지수와 아동인권

김 형 옥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아동의 행복지수는 아동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삶에 대한 만족 정도를 행복지표, 즉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화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국내적 행복지수를 파악하고, 국제비교를 통하여 아동의 삶의 물질적·정신적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꾀하려는 노력은 매우 유의미하다. 행복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데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행복지수는 최소한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반여건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개선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복지수가 아동의 인권상황을 파악하는데 얼마만큼 유효하며,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행복지수가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행복지표가 인권(권리)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행복지표 선정에 있어서 아동권리협약은 국제적인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기준을 국내 아동의 현재의 인권현실을 반영하여 지표화하는 작업이 아동인권지표라 할 수 있다. 즉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존과 생명, 발달의 권리, 더 나아가 아동이 권리행사의 주체로서 정당하게 의견이 존중되고 자신과 관련한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선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개별권리의 실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특히 권리침해에 대한 보호와

구제, 권리행사에 대한 지표 등이 선정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권리는 교육, 복지, 보건·의료, 소년사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권보장 실태를 반영해야 한다. 이와 같은 아동인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선정은 협약의 일반원칙을 충실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sup>1)</sup>. 한 예로 지표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 국적의 아동, 다문화아동 등 한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누구나 지표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여기에는 조사에 참여하기 곤란한 아동에 대한 배려도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행복지표를 통하여 국제비교를 하고자 한다면, 지표내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수치화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필요로 하기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행복지표는 아동의 인권과 관련이 있지만, 행복지수가 높다고 해서 아동의 인권이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영역별 행복지수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가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는 단초를 제공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 ○ 부모관계, 친구관계, 자아긍정감은 아동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행복지표 중에는 아동이 권리행사의 주체로서 스스로 인권을 알고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조화로운 인간관계 형성과 자아긍정감이다.

아동에 대한 권리침해의 대부분은 불안정한 인간관계에서 출발한다. 아동은 불안정한 인간관계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다양한 권리침해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지역사회 주민과 아동의 불안정한 인간관계는 납치, 성폭력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아동과 아동 사이의 불안정한 인간관계는 따돌림, 금품갈취, 폭력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부모나 보호자와 아동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권리침해는 신체적·정신적·성적학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사이의 불안정한 인간관계는 체벌, 무시, 차별뿐만 아니라 수업방해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아동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권리침해 문제는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기인한다. 특히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은 침해당하는 아동이 이것이 권리침해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

1) 차별금지(제2조), 아동이익의 최우선 확보(제3조), 생존·생명 및 발달보장(제6조), 아동의 의견존중(제12조)

못으로만 받아들여 낙심하고 우울해하며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안타까운 일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완전한 인간관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아동 스스로가 이러한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힘(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힘(능력)을 신뢰하여 발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신을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아긍정감이 아동이 권리를 행사하고 지킬 수 있는 힘(능력)을 제공한다.

### ○ 아동인권지표는 한국사회의 아동의 권리를 모니터링하는 현실적인·현재적인 지표가 되어야 한다.

아동인권지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아동의 인권현황을 영역별로 제시한 지표와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정부와 민간에서 아동인권지표를 개발해 왔다. 하지만 이들 지표는 거의 대부분이 기존의 사회지표 혹은 복지지표 등을 참고로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영역별로 나누고 그에 해당되는 내용을 통계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낮은 통계를 보인 것은 아동관련 정책에 활용되기도 한다. 후자는 인권현황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실현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동관련 정책을 평가·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개발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상담 및 보호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지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하지만 관련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아동인권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여기에서의 지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동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설정이 필요하다. 즉, 아동이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이용에 주저함이 없는지, 관련정보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안심하고 편안하게 상담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또한 상담결과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보호체제로 연계되어 있는지, 상담으로 인한 제2의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지표설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아동인권

지표는 개별권리 침해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인권지표는 아동의 인권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아동의 인권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수치화된 지표가 아동의 인권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과 사회적 권리의 불균등 분포 토론문

김 신 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기간 국내 청소년 행복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 복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하위 집단별(e.g., 성별, 연령별, 지역별등) 행복감 정도의 차이에 대한 기술적 연구와 어떤 변수들이 청소년의 행복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는 연구들로 구분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청소년 행복의 구성요인을 측정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들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존재한다. 청소년 행복을 주제로 하는 기존 연구들과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의의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연구의 흐름을 하나의 연구 속에 통합적으로 담아내고자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각 영역별 점수의 국제 비교, 둘째, 행복지수의 영역별 점수를 사용한 국가군 설정 및 해석, 마지막으로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망 유형 분석 및 주관적 행복에 대한 효과 연구가 그것들이다. 본 토론은 각각의 연구주제와 그것의 결과들에 대해서 토론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먼저, 표준화 과정을 통하여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영역별 점수를 수평적으로 비교한 결과는 무척 흥미롭다. 구체적으로 다른 영역의 척도들이 무엇이었는지는 이 논문을 통해 알 수 없지만 한국의 경우 행복지수의 여섯 가지 하위 영역 중 주관적 행복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는 ‘주관적 불건강’, ‘삶의 만족’, 그리고 ‘외로움’에서의 낮은 점수가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행복에 대한 과거 연구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매우 일관된 결과이다. 특히 ‘삶의 만족’에 대한 응답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충격적일 정도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객관적 조건의 충족이 반드시 정신적인 삶의 만족과 직결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이 논문은 조사대상 국가들의 영역별 표준점수를 사용하여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째, 다차원척도 분석의 근원적 한계 또는 문제점 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연구자께서 자료 분석 상 드러난 두 가지 차원을 명명(labelling)한다면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를 여쭙어 보고자 한다. 아마도 그 작업이 다차원 척도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 아닐까 한다. 둘째, 다차원 분석에 의해 국가별로 군집을 구성하고 군집별 특성의 차이를 사후적으로 해석해내는 작업이 다소 자의적이고 ad-hoc 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군에 대한 설명으로 외세의 잦은 침략, 소득수준의 상대적 평등성, 다소 낮은 수준의 GDP, 좋지 않은 복지제도 등을 언급한 것은 직관적으로 ‘그럴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나 논리적 인과관계의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기에는 다소 ‘small evidence, big conclusion’의 느낌이 든다. 물론 이러한 국가별 비교작업의 방대함과 어려움을 본 토론자가 모르는 것은 결코 아님을 밝혀 둔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잠재적 집단분석과 회귀모형 설정을 통하여 폐쇄적인 연결망의 정도가 조사대상의 주관적 행복과 기타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친한 친구의 수’를 사용하여 연결망의 제한된 형태만에 주목해 왔음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분명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한 단계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자면 첫째, 직관적으로 볼 때, 사회적 관계망의 형태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 중 ‘어울림’, ‘외로움’등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요소들, 특히 ‘학교생활만족’, ‘주관적 건강’, ‘삶의 만족’등에는 어떤 기제(mechanism)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연구자께서는 생각하시는지를 묻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닫힌 연결망의 효과는 연결망의 폐쇄성으로 인한 정보의 정확성, 낮은 거래비용, 높은 수준의 통제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에서 언급한 하위영역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묻고자 한다.

다음으로 방법론적 이슈를 몇 가지 제기해 보고자 한다. 회귀 모형 자체의 낮은 설명력(r-square 값의 낮음으로 볼 때)으로 볼 때 통계적 유의성이 지나치게 충분한 표본의 크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가능성을 제기해 본다. 그리고 혹시 남자청소년과 여



자칭소년들의 잠재모형구조가 다르게 나타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한 든다. 이 부분은 설령 성별로 차이가 없다고 할지라도, 제시한 종속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논문에서 제시된 회귀모형들은 설명력 차원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구자들의 생각에 한국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에는 도대체 무엇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또 하나, 분석결과를 보면 학원선생님과의 관계가 주관적 행복에 주는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사교육이 학업성취를 넘어서 한국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를 묻고 싶다. 재밌는 연구결과에 대해 토론할 수 있게 된 기회에 감사하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 빈곤가족 아동<sup>1)</sup> 인권과 행복자리

이 경 림 (부스리기사랑나눔회)

## 1. 들어가며

아동에게 행복의 조건이란 무엇일까? 행복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삶에 만족하여 기분좋은 상태”라고 발표하였듯이 아동의 삶을 둘러싼 환경 안에서 아동이 기분 좋게 일상 생활을 보내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삶을 둘러싼 환경을 크게 가정, 학교, 친구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 아동들 그 중에서도 부모의 빈곤으로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관계에서 지금 행복한가? 그리고 어떤 요소들이 우리 아이들을 자신의 환경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혹은 불행을 느끼게 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최근 부스리기사랑나눔회에서 실시했던 몇 가지 설문 결과에 나타난 빈곤가족 아동의 인권과 행복자리를 제시하며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 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생활만족도

### 1) 지역아동센터 및 이용자 현황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 16조 1항 11호의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1) 본 토론문에서 “아동”은 UN의 아동권리협약(CRC)의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임.

현재 전국 3,274개소의 94,406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다(2009년 6월말 기준, <http://www.icareinfo.info>). 이용하는 아동의 가족유형으로는 양부모가족 55,811(59.1%)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모자가족 17,051(18.1%), 부자가족 11,144(11.8%), 조손가족 7,62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의 경우 전체 이용아동(94,406명) 중 수급권 가구 내 아동이 28,334명(30.0%), 차상위 가구 내 아동이 29,932명(31.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학교 중식 지원아동 7,984(8.5%)과 일반 저소득층 가구내 아동 28,156(29.8%)로 70.2%가 빈곤가구내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다.

## 2) 이용 아동의 기관 이용 서비스 만족도와 생활만족도<sup>2)</sup>

2007년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7,088명(초등학교 5학년 ~ 고등학교 3학년)에게 생활만족도를 설문해보았다. 생활만족도로는 양옥경(1994)의 삶의 만족 측정을 위한 척도를 재구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의식주, 친구관계, 주양육자관계, 행복감, 자아감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서비스 만족도로는 보호프로그램, 학습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대인관계프로그램, 아동참여 인권을 세부 내용으로 척도화하여 측정하였다.

생활 만족 척도 중 “나는 현재 행복하다”라는 질문을 5점 척도로 물어보았을 때 평균 3.91점으로 행복하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78.2%의 아동들이 행복하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아동이 9.9%로 10명중 1명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06년 동일한 질문을 하였을 때는 81.4%(허남순 외, 2006)가 ‘행복하다’고 대답한 것에 비해서 -3.2% 차이가 나는 것으로 행복감이 더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 (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생활만족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생활 만족도를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여, 성별, 학년, 가족형태, 서비스 이용기간으로 아동특성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2) 이경림 외(2007). 지역아동센터 특성이 이용아동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서비스 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논문중 일부 발췌, 재구성함

이중 ‘행복감’은 성별, 학년,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학생 보다 (M=3.97, \*\*\*p<.001) 여학생이 (M=4.06, \*\*\*p<.001) 주양육자의 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중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의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형태 별로는 일반가족 아동이 가장 행복감(4.08)로 가장 행복감이 높았으며, 모가족, 부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아동의 생활 만족도

n=7,088

변인	하위변수	생활 만족도					
		의식주 M(SD)	친구관계 M(SD)	주양육자 관계 M(SD)	행복감 M(SD)	자아감 M(SD)	전체 M(SD)
성별	남	3.60(.79)	3.70(.92)	3.89(.99)	<b>3.97(.94)</b>	3.77(1.01)	3.79(.69)
	여	3.62(.77)	3.67(.90)	4.05(.95)	<b>4.06(.91)</b>	3.79(1.00)	3.84(.68)
	<b>t값</b>	-.772	1.434	<b>-6.755***</b>	<b>-3.804***</b>	-1.187	<b>-2.958**</b>
학년	초등학교5~6학년	3.64	3.70	4.02	<b>4.07</b>	3.82	3.86
	중.고생	3.48	3.61	3.82	<b>3.81</b>	3.65	3.68
	<b>t값</b>	<b>6.644***</b>	<b>2.927**</b>	<b>6.881***</b>	<b>9.463***</b>	<b>5.407***</b>	<b>8.421***</b>
가족형태	일반가족	3.71(.77)	3.74(.89)	4.08(.94)	<b>4.08(.90)</b>	3.86(.98)	3.90(.66)
	모자가족	3.55(.76)	3.66(.91)	3.95(.96)	<b>3.96(.96)</b>	3.72(1.00)	3.77(.68)
	부자가족	3.40(.75)	3.60(.93)	3.77(1.01)	<b>3.94(.92)</b>	3.68(1.03)	3.68(.69)
	조손가족	3.40(.79)	3.53(.91)	3.78(1.00)	<b>3.94(.95)</b>	3.60(1.06)	3.65(.71)
	재혼가정	3.60(.82)	3.55(.99)	3.80(1.01)	<b>3.90(.96)</b>	3.71(.97)	3.71(.70)
	합계	3.61(.78)	3.68(.91)	3.98(.97)	<b>4.02(.92)</b>	3.78(1.00)	3.82(.68)
	<b>F값</b>	<b>43.941***</b>	<b>10.437***</b>	<b>30.076***</b>	<b>8.829***</b>	<b>14.339***</b>	<b>33.885***</b>
서비스 이용기간	1년미만	3.63(.78)	3.66(.92)	3.95(.99)	<b>4.01(.93)</b>	3.74(1.02)	3.81(.68)
	1년이상~3년미만	3.60(.78)	3.68(.90)	4.00(.95)	<b>4.03(.92)</b>	3.79(.99)	3.83(.67)
	3년이상	3.58(.78)	3.71(.89)	3.98(.96)	<b>4.03(.92)</b>	3.83(1.00)	3.84(.69)
	합계	3.60(.78)	3.68(.90)	3.98(.97)	<b>4.02(.92)</b>	3.78(1.00)	3.82(.68)
	<b>F값</b>	1.025	1.380	2.037	<b>.226</b>	<b>3.446*</b>	1.049

주: \*p<.05, \*\*p<.01, \*\*\*p<.001

출처: 지역아동센터 특성이 이용아동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86p

## (2)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서비스 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상관관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서비스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생활 만족도의 하위변인인 의식주, 친구관계, 주양육자 관계, 행복감, 자아감과 서비스 만족도의 하위변인 시설 및 환경, 교사관계, 친구관계, 보호, 학습, 문화프로그램, 대인관계프로그램, 인권참여 프로그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면에서 서비스 만족을 느낀 아동은 실제 생활에서 행복감과 자아감, 의식주 면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교사관계와 친구관계, 보호, 학습, 문화 대인관계, 인권참여 프로그램에 만족을 느끼는 아동은 행복감, 자아감, 주양육자 관계에서 생활만족도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아동대인관계프로그램과 행복감이 가장 높은 상관계수( $r=.501$ )에 있었으며, 대인관계프로그램과 생활 만족도 전체( $r=.490$ ), 친구관계와 생활 만족도 전체( $r=.473$ ), 교사관계와 행복감( $r=.46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대인관계 프로그램, 친구관계 프로그램, 인권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때 아동의 생활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이용아동 서비스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구분		생활 만족도					
		의식주	친구관계 (만족도)	주양육자 관계	행복감	자아감	전체
서비스 만족도	시설 및 환경	.265***	.209***	.253***	<b>.405***</b>	.278***	.380***
	교사관계	.246***	.217***	.300***	<b>.469***</b>	.308***	.418***
	친구관계(프로그램)	.292***	.378***	.295***	<b>.421***</b>	.367***	.473***
	보호프로그램	.193***	.185***	.231***	<b>.418***</b>	.275***	.353***
	학습프로그램	.202***	.155***	.217***	<b>.394***</b>	.260***	.333***
	문화프로그램	.123***	.124***	.183***	<b>.327***</b>	.202***	.263***
	대인관계프로그램	.296***	.294***	.333***	<b>.501***</b>	.380***	.490***
	인권프로그램	.287***	.289***	.313***	<b>.401***</b>	.371***	.450***

주: \* $p<.05$ , \*\* $p<.01$ , \*\*\* $p<.001$

출처: 지역아동센터 특성이 이용아동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86p

### 3. 청소년 발달지표를 통해서 본 아동의 인권과 행복자리

2008년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1318해피존<sup>3)</sup> 이용 청소년 524명과 한국의 다른 청소년과의 발달특성에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지 조사하였다. 청소년 발달특성으로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적 특성, 시민적 특성, 진로와 직업특성의 지표로 조사하였다. 이 조사 지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청소년발달지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김신영(2006)이 연구한 자료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청소년의 발달특성 비교

발달특성	세부 발달특성	해피존청소년		일반청소년 2006년C	차이		
		2007년 A	2009년 B		A-C	B-A	B-C
정의적 특성	자아개념	<b>3.07</b>	<b>3.37</b>	<b>3.29</b>	<b>-0.22</b>	<b>+0.30</b>	<b>+0.08</b>
	행복감	<b>3.03</b>	<b>3.26</b>	<b>3.30</b>	<b>-0.27</b>	<b>+0.23</b>	<b>-0.04</b>
	목표지향성	3.43	3.53	3.86	-0.43	+0.10	-0.33
	소계	3.16	3.39	3.45	-0.29	+0.23	-0.06
인지적 특성	창의성	3.55	3.62	3.58	-0.03	+0.07	+0.04
	자기주도학습준비도	3.41	3.49	3.62	-0.21	+0.08	-0.13
	문제해결능력	2.83	3.09	3.10	-0.27	+0.26	-0.01
	소계	3.23	3.40	3.41	-0.18	+0.17	-0.01
사회적 특성	사회적 신뢰감	3.00	3.22	2.63	+0.37	+0.22	+0.41
	친사회성	3.07	3.28	3.42	-0.35	+0.21	-0.14
	사회적 기술			3.12	-0.05		+0.16
	소계	3.04	3.26	3.05	-0.01	+0.22	+0.22
시민적 특성	인권의식	<b>3.78</b>	<b>3.92</b>	<b>3.41</b>	<b>+0.37</b>	<b>+0.14</b>	<b>+0.51</b>
	국가에 대한 태도	3.55	3.59	-	-	+0.04	
	국제화의식	3.55	3.59	3.53	+0.02	+0.04	+0.06
	공동체의식	3.31	3.42	2.92	+0.39	+0.11	+0.50
	건전소비의식	3.43	3.53	3.21	+0.22	+0.10	+0.32
	소계	3.58	3.68	3.31	+0.27	+0.10	+0.37

3) 1318해피존은 청소년전용(중·고등학생) 지역아동센터로서 현재 전국의 30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발달특성	세부 발달특성	해피존청소년		일반청소년 2006년C	차이		
		2007년 A	2009년 B		A-C	B-A	B-C
진로와 직업특성	진로선택주도성	4.00	4.08	4.02	-0.02	+0.08	+0.06
	직업적 특성이해	3.53	3.62	3.72	-0.19	+0.09	-0.10
	진로준비활동	3.34	3.65	-	-	+0.31	
	소계	3.60	3.85	3.87	-0.27	+0.25	-0.02

\* 출처: 이용교 외(2009). 1318해피존 사업의 운영효과와 사업성과 연구. 부스러기사랑나눔회 1318해피존 사업단. 98p

본 조사에 의하면 일반청소년과 비교해서 정의적특성, 인지적특성, 사회적특성, 진로와 직업특성에서 모두 다소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시민적 특성에서만 약간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의적 특성으로 자아감이 일반청소년보다 +0.0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복감’에서는 일반청소년보다 -0.0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민적 특성의 ‘인권의식’에 대해서는 일반청소년보다 +0.51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1318해피존 이용년도가 오래될수록 자아감, 행복감, 인권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청소년보다는 낮지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참여 청소년들의 자아감, 행복감을 높여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4. 나가면서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아동.청소년 지표를 통해서 빈곤가족 아동의 인권과 행복자리를 살펴보았다. 성별, 학년, 가족유형별로, 서비스 내용과 만족도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서 아동들의 행복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서비스 기관에서의 ‘대인관계 프로그램’, 인권프로그램’과 ‘자아감’에 따라서 아동의 행복감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일반청소년보다 빈곤청소년들의 행복감이 더욱 낮은 것을 것으로 나타나 빈곤 청소년들이 자신의 빈곤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 연구의 질적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행복지수를 통해서 우리 아동들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무척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또한 기대한다. 국제적 지표와 비교하여 볼 때 한국적 상황과 한국 내 일반 아동 뿐 아니라 빈곤아동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동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들을 찾아내어 학교, 가정, 친구관계 뿐 아니라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가능한 방법들이 연구되어 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지표의 개발 및 국제비교를 통해서 빈곤가족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학교,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난함과 상관없이, 가난을 뛰어넘어 행복을 느끼면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정책과 서비스 내용과 개발에 적용되어 현장에서 실천될 것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신영 외(2007)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 조사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림 외(2007). 지역아동센터 특성이 이용아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아동정보센터.
- 이용교 외(2009). 1318해피존 사업의 운영효과와 사업성과 연구. 부스러기사랑나눔회 1318해피존 사업단.
- 허남순 외(2006). 지역아동센터 운영성과 분석에 따른 운영모델 개발 및 발전방안 모색.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아동정보센터.

[www.icareinfo.info](http://www.icareinfo.info)



---

**행복지수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인권 현주소**

---

| 인 쇄 | 2009년 9월

| 발 행 | 2009년 9월

| 발행인 | **현 병 철**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756 | F A X | (02) 2125-9733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179-01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